

예술과만남

06+07 2022 Vol.156
Gyeonggi Arts Center Magazine
www.ggac.or.kr



이달의 레퍼토리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베르디 레퀴엠>

이달의 아티스트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성악앙상블 소리봄

프리뷰, 하나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四季(사계)의 노래>

예술이 만난 인문학

일상과 예술 사이, 문학 언어는 어떻게 발명되는가

컬처로드

일상과 예술이 공존하는 오스트리아, 빈



선율

깊은 어둠 속 침묵을 깨고

소리, 몸짓, 호흡을 창조하는 순간

작은 숨결 하나하나 선율이 된다

전율

한정된 시간, 제한된 공간

들숨과 날숨이 머무는 곳

전율과 떨림을 주고받으며

객석과 무대를 채우는

떨림

우리는 그렇게 매일 그리고

모든 순간, 다른 공연을 만든다

격월간 예술과만남 2022년 6+7월호
발행처 경기아트센터
발행인 신명호
편집장 임선미
기획·취재 허명현, 탁나희, ACE(예술과만남 편집회의)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307번길 20
전화 031-230-3242
이메일 magazine@ggac.or.kr
홈페이지 www.ggac.or.kr
기획·디자인 방형식디자인
ISSN 2234-5949

<예술과만남>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GGAC's Theme

- 08** **오(oh), 피니언**
 일상 속 예술의 발견
 삶이 예술이어야 하는 이유
- 12** **이달의 레퍼토리**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베르디 레퀴엠>
 세상에서 가장 장엄하고
 깊은 고뇌로 새겨질 이별의 노래
- 16** **이달의 아티스트**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성악양상블 소리봄
 소리에 담아 오롯이 전하는 각자의 계절
- 20** **내다보기**
 세상을 아름답게 모두에게 이롭게
 일상, 예술이 되다

On Stage

- 24** **프리뷰, 하나**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四季(사계)의 계절>
 시간, 공간, 사람을 잇는 이야기
- 26** **프리뷰, 둘**
 경기도무용단 2022 레퍼토리 시즌
 <하랑 - 함께 날아오르다>
 한국 춤의 새로운 세대를 꿈꾼다
- 28** **프리뷰, 셋**
 가족 공감 시리즈
 <한스짐머 & 하사이시 조 스페셜 콘서트>
 영화보다 빛나는 음악, 그 여운을 다시
- 30** **프리뷰, 넷**
 경기필하모닉 <베르디 레퀴엠>
 삶과 죽음에 관한 깊은 사색
 떠나는 거장을 위한 헌사
- 32** **리뷰, 하나**
 경기도무용단 <순수_더 클래식>
 시청각적 스펙터클과 경합하는 춤,
 한국무용 무대의 새로운 속제
- 34** **리뷰, 둘**
 연극 <친정엄마와 2박3일>
 엄마... 다음 생애는 내 딸로 태어나줘



ONE Talk

- 38** _____ **예술이 만난 인문학**
일상과 예술 사이,
문학 언어는 어떻게 발명되는가
- 42** _____ **트위작**
좀비 전성시대, 괴물계의 챔피언이 되다
- 44** _____ **컬처로드**
일상과 예술이 공존하는 오스트리아, 빈
- 48** _____ **예술 알고리즘**
과학과 기술을 만난 예술세계 이야기
- 52** _____ **#공감태그**
#독차참여#SNS 공연리뷰

GGAC's Pick

- 56** _____ **GGAC NOW**
2022년 경기도무용단 프로젝트 단원
이현지·임원근·안시현·임영주
뜨겁고 행복하게 춤과 인생을 배우는 중입니다
- 60** _____ **문화나눔 · 쉼터**
경기아트센터 2022 감성맞춤 인문학 아카데미
- 62** _____ **GGAC NEWS**
경기아트센터 뉴스
- 64** _____ **CALENDAR**
2022년 6~7월 주요 공연 일정
- 66** _____ **예술과만남 활용백서**
예술과만남 슬기로운 탐구생활

일 상 과

GGAC's

단조로운 일상을 다채롭게 바꾸는 힘,
예술이란 어렵고 전문적인 것이 아닌
평범함 속 특별함을 발견하는 과정이자 매개이다.



누구나 각자의 일상에서 예술을 발견할 수 있다.
애정 어린 시선으로 주변을 바라보고,
귀 기울이고 감동하는 우리의 일상은
어쩌면 이미 그 자체가 예술일지도 모른다.

Theme

예술 사이

일상 속 예술의 발견

삶이

예술이어야
하는 이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의 삶에 마스크라는 물건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었다. 불과 몇 년 후, 예술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될 때, 당신은 생존할 것인가 아니면 소멸할 것인가.





- 1, 2 가면 만들기 (K대 디자인 발상 기법 결과물) - 익히지 않은 생물재료로 가면을 만든 학생. 일상의 재료를 새롭게 재해석한 흥미로운 작품이다.
- 3 안경 만들기 (K대 디자인 발상 기법 결과물) 안경을 주제로 내준 이 과제에 학생 대부분이 기성 안경디자인을 모티브로 작업한 것과는 달리 형체가 없는 그림자로 안경을 만든 학생이 있었다. 재료나 기법을 넘어서 철학적인 개념까지 포함시킨 작품이다.

발명이 아니라 발견하는 예술

학교에서 생긴 작은 오해로 억울해 하는 내 아이를 끝까지 믿고 편들어 주는 일, 가족의 건강을 위해 좋은 재료를 찾아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드는 일 등은 꼭 변호사나 요리사가 아니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일상의 한 부분인데 왜 예술만큼은 내가 아닌 특정인의 장르라는 거리감이 드는 것일까? 예술을 우리의 삶과 분리하지 않고 라면을 끓이듯이, 굴러다니는 달력 하나를 뒤흔든 벽에 툭 걸어 놓듯이 쉽게 받아들이고 가볍게 사용할 수는 없을까? 지금까지 예술 없이도 잘 먹고 잘 살아온 당신들에게 필자는 왜 뜬금없는 질문을 던지고 삶이 예술이어야 한다는 억지스러운 주장을 펼치는 것일까?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글은 단지 예술을 사랑하자거나 예술을 익혀서 감성 충만한 사람이 되자는 내용이 아니라 예술 없이 살았던 지난 시절 당신의 삶이 어떤 미래를 가져올지, 정말 이대로 괜찮은지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다소 도발적인 글임을 밝혀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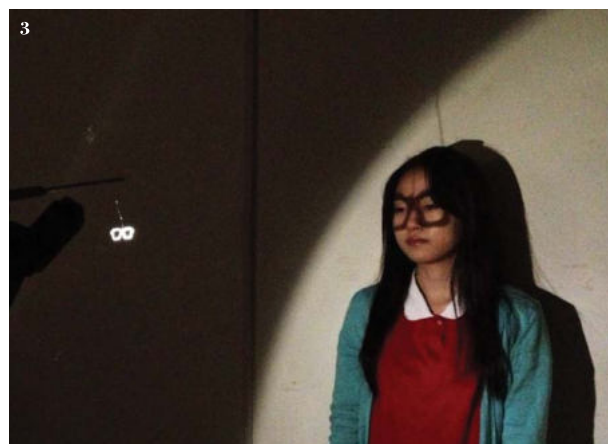
예술은 원래 삶의 기술이다

예술은 구체적인 쓸모나 실체가 없
이도 당신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만
성두통처럼 늘 달고 살았던 부질

없는 걱정을 없애주며 당신이 사는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깨달음을 제공해주는 장치이자 기술이다.

원래 인간은 예술적이고 창의적인 DNA를 풀(full) 장착하고 태어나지만, 그 DNA들은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거나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한 준비, 다시 말해 잘 먹고 잘살기 위해 사람들이 긴 시간 구축해놓은 가장 실용적이고 손쉬운 방법을 반복해 선택하는 순간 휴대폰 배터리가 방전되듯 점차 사라지기 시작한다.

그렇게 한번 사라진 창의적 DNA들을 몸속에 다시 배열하고 재생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편리함을 버리고 불편함 속으로 기꺼이 뛰어든 수 있는 용기와 그 용기가 선물하는 낯설지만 새로운 습관이 결국 다가올 세상에서 자신을 살릴 유일한 무기가 된다는 걸 안다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에 스며들어야 가능한 깨달음이기 때문이다. 꼭 그런 엄중한 깨달음이 아니더라도 평생 쫓아다니던 돈과 안락, 유희에서 벗어나 뒤늦게라도 예술을 곁에 두고 싶는데 이전엔 고민해보지 않은 영역의 장르라 그런지 도통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 무엇이 예술이고 어디까지를 예술이라 말할 수 있는 건지 모를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작품만

예술이 아니다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

이름도 묻지 않고 덜컥 손부터 잡

을 수는 없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느낀 첫인상과 실제 성격과 차이는 없는지 알아낼 탐색의 시간이 필요하다. 처음엔 까탈스러워 보였던 사람이 알고 나면 세상 더 없는 다정한 사람인 경우를 우리는 종종 목격하지 않았는가? 예술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충격적인 것이 하나 더 있다. 당신은 몰랐겠지만 우리는 이미 예술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작품의 경지에까지 도달하려면 약간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예술 바로 직전 레벨에서 당신들은 이미 만렙이다.

작품에서 받은 예술적 영감을 대중이 쉽게 경험하고 만질 수 있도록 쓰임과 결합해 세상에 내놓는 예술 번역가가 바로 디자이너인데 지금 바로 주위를 둘러보자. 그리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도 꼼꼼히 살펴보자. 당신을 둘러싼 어느 하나라도 디자인이 없거나 색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있는지를. 그렇게 우리는 평생 색과 모양을 선택하면서 살아왔다, 시장에서 고르는 양말 하나도 모양과 색을 따지기 마련이고 머리카락, 피부, 디저트, 지갑 등 정신을 차리고 보면 내 몸과 삶 구석구석 색과 모양이 아닌 게 없다는 걸 알게 된다. 세련됨과 촌스러움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 역시 맨 위에서부터 줄기를 타고 내려온 예술의 한 부분이고 존중받아 마땅한 개인의 취향일 뿐이다. 그것조차 예술이었다는 걸 알아차렸다면 마침내 당신이 만만한 예술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에 도착했다는 의미이다.

스스로 찾아 즐기지 못하고 의무교육으로만 예술을 접하게 되면 그림을 못 그리거나 노래를 못한다는 걸 깨닫는 순간, 자신을 예술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 받아들이며 성장하게 된다. 하지만 예술로 세상을 촉촉하게 만드는 일엔 직접 행위를 하는 예술가만큼이나 그 예술을 사용하는 예술 소비자가 필요하고 그런 예술 소비의 시작은 사소하고 사사로울수록 좋다는 걸 알아야 한다. 값비싼 화가의 그림이 아니라 형태도 알아볼 수 없는 내 아이의 첫 그림을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어두려는 마음,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친구하고 흔한 이미지와 색에 반응하고 그 중 개인적으로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을 기록하고 나열하려는 시도가 바로 당신이 예술을 곁에 둘 자격을 얻게 되는 시작점이다.



4 디자인을 전공하는 딸이 어릴 때 그렸던 그림

5 사과 시계 - 필자의 딸이 아기였을 때 굶어 먹이고 남은 사과 조각을 일주일 동안 촬영해 시계로 만든 적이 있었다. 생각을 조금만 비틀어도 음식 쓰레기일 수 있는 사과의 갈변 과정이 시간의 흐름을 인지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이미지로 탄생한다.

예술은

어디에나 있다

누군가 이름을 부르면 비로소 꽃

이 된다고 했던가? 가족, 연인, 버

리지 못하는 물건 등 나에게만 소중한 것들을 떠올려 보자.

아무리 싹싹한 친구의 동생이라 해도 준 것 없이 밉고 볼 때마다 싸우는 내 동생만큼 각별하고 유일한 의미를 가질 수는 없다. 객관화하고 표준화시키기 어려운 예술이 오랜 혼돈의 역사를 뚫고 지금까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남들이 쓰레기라고 불러도 내가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담으면 어느새 예술이 된다는 것. 그것 말고도 예술을 받아들여 당신의 삶을 예술로 물들여야 할 수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작가를 많이 알고 클래식 역사의 계보를 꿰뚫고 있는 것, 그림이나 악기를 다루는 것들은 목록 상위에 포함조차 되지 않는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동안 당신을 충만하게 했던 돈도, 집도, 차도 아닌, 실용성 제로인 예술에 당신이 매료되었을 때 삶의 기준과 가치관이 이전과는 다르게 변화할 가능성에 있다. 그 가능성 하나만으로도 예술이나 예술 비즈니스한 것에 시선을 돌릴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잘 먹고 잘살기 위해 힘을 쏟았던 때처럼 예술을 곁에 두는 일에만 전투적일 필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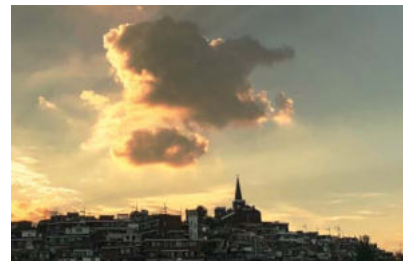
요는 없다. 그저 해가 질 무렵 동네를 산책하듯 지나가는 풍경처럼 예술을 바라보면서 당신을 반응하게 하는 장르와 호기심을 자극하는 작가를 만나게 될 언젠가를 기다리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면, 그리고 삶의 공간 사이사이 당신이 사랑하고 아끼는 것들을 글이나 그림, 사진으로 직접 기록하면서 매만지고 감상하다 보면 머지않아 당신의 예술을 만나게 될 것이다. 예술은 예술을 즐길 줄 아는 몇몇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렇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을 위축시키거나 모욕하기 위해 탄생한 장르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먹는 음식, 당신이 하는 일, 당신이 만나는 사람, 당신을 들었다 났다 하는 감정 속에 예술이 숨어있으니 눈에 힘을 주고 마음을 활짝 열어 발견하면 된다. ◀

글 — 박기열

공예, 사진, 글, 음악 등 장르를 망라하는 전방위 예술가이자 이 세상 모두의 삶이 예술이길 응원하는 인문학 강연자이다. 2018 박경림 토크 콘서트의 예술감독을 시작으로 다양한 예술 기반 콘텐츠에 참여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오은영 박사의 강연 “육아 처방전·훈육의 새로 고침”을 기획했다.

예술을 일상으로 가져오는 다섯 가지 제안

우선 내가 사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예술시설의 홈페이지를 찾아 살펴보자. 키워드는 예술, 미술관, 전시, 박물관, 공연장 뭐든 좋다. 우리가 신경도 안 쓰는 사이 얼마나 근사한 전시와 공연들이 다양하게 펼쳐지는지를 알고 나면 아마 깜짝 놀랄 것이다. 거장의 작품은 그것대로 깊이와 울림이 있고 젊은 예술가들의 작품은 그것대로 열정과 참신함이 내포되어있으니 예술 초보 단계라면 처음부터 굳이 예술가와 장르를 가리거나 구별할 필요는 없다. 최대한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하고 난 후 자신의 취향에 맞거나 울림을 줬던 작품들을 중심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되기 때문이다. 끝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 몇 가지를 제안한다.



1. 책상 위의 머그잔부터 바꿔보자

별다방 컵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대한 고민과 손맛이 담긴 도예가의 컵은 어떨까?

2. 아직 알려지지 않은 신진 예술가들의 시작을 응원해보자

예술가는 단 1명이라도 자신을 응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는다. 이미 완성된 예술을 탐닉하기보다 서서히 예술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 더 멋지지 않은가?

3. 당신이 서 있는 곳이 곧 당신 삶의 현주소다.

지난 시절, 주로 노래방과 카페에 출몰했었다면 이제는 미술관과 공연장이다.

4. 하루에 한 장, 내가 본 것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보자.

하루 단 한 개의 이미지를 선택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미지는 물론 의미까지 생각해야 하므로.

5. 내 몸의 낮선 감각과 기능을 자극하자.

당신 집 바로 옆 건물 지하에 예술가의 작업실이 있을지도 모른다. 공방도 좋고 문화센터도 좋으니 더 늦기 전에 새로운 감각과 몸의 기능에 자극을 주자. 당신의 남은 인생을 책임질 당첨 가능성이 꽤 높은 로또가 될지 모른다.

경기필하모닉 <베르디 레퀴엠>

세상에서
가장 장엄하고
깊은 고뇌로 새겨질
이별의 노래

경기필하모닉이 <베르디 레퀴엠> 공연을 마지막으로 음악감독 마시모 자네티와의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지난 2018년 성시연 단장으로부터 지휘봉을 물려받은 자네티는 경기 필 최초의 외국인 예술감독이었다. 물론 그동안 리카르도 무티를 비롯해 압판 츠베덴, 핀커스 주커만 등 세계적인 지휘자들이 경기필의 포디엄을 빛냈지만, 스쳐 가는 인연이었다. 그의 임명은 성시연 체제 아래 일본(2014)과 독일(2015), 유럽(2017) 투어를 성공리에 마무리하며 국제적인 감각과 음악성이 한창 무르익은 경기필이 글로벌 오케스트라로 한 차원 더 발돋움하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으로 해석됐다.





Massimo



Zanetti

오페라 전문 지휘자의 찬란한 여정

1962년 이탈리아 밀라노 출신의 마시모 자네티는 오페라 전문 지휘자로 명성이 높은 지휘자다. 밀라노의 라 스칼라를 비롯해 독일 드레스덴 젬퍼오퍼 및 바이에른 슈타츠 오퍼, 스위스 취리히 오페라극장에 이르기까지 굴지의 오페라 하우스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초대를 받는 명사이다. 모차르트부터 푸치니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를 섭렵해왔지만 밀라노 출신답게 최고 장기 오페라들은 베르디였다. ‘오텔로’, ‘라 트라비아타’, ‘돈 카를로’, ‘리골레토’, ‘가면무도회’, ‘시몬 보카네 그라’ 등의 공연에서 특히 호평을 받았다.

2018년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경기필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자신의 장기를 적극 살릴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고전주의부터 20세기 동시대 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를 아우르는 동시에 오페라 형식을 도입한 오케스트라 공연도 적극적으로 시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같은 해 9월,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개최된 취임 기념 연주회는 이 같은 포부를 실천하는 첫 무대였다. 자네티의 한국 데뷔무대이기도 했던 이 공연을 그는 고전주의를 대표하는 작곡가 모차르트 교향곡 35번 ‘하프너’로 시작해 박혜상 소프라노의 협연으로 ‘돈 조반니’ 등 오페라 아리아로 마무리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하지만 오페라 레퍼토리를 탑재한 자네티의 열망은 안타깝게도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그는 전체 임기 중 후반부의 절반을 예상치 못하게 찾아온 팬데믹과 사투를 벌이며 보내야만 했다. 전염병에 가장 취약한 오케스트라와 오페라라는 두 장르로 야심차게 꾸며진 그의 기획들은 대부분 취소되거나 연기될 수밖에 없었다.

그 와중에 임기 마지막 해인 지난 3월 경기아트센터에서 경기필과 함께 펼친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은 팬데믹에서 비롯된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래는 무대였다. 오페라를 온전히 감상하기에 열악한 음향 조건을 가진 경기아트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이날 공연의 승전보는 수원을 넘어 서울 청중들에게까지 들려왔다. 자신의 반려 고양이 이름을 ‘피가로’라고 붙일 만큼 이 작품은 자네티가 가장 사랑하는 오페라이기에, 이 공연은 스스로에게 한국에서 거두는 유종의 미로 다가왔을 것이다.



세계를 향한 경기필하모닉의 변화와 진화

오페라를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그가 지휘한 교향곡과 관현악곡 레퍼토리들을 통해 그가 오페라에서 갈고 닦은 장기를 음미할 수 있었다. 베렌라이터 판본으로 완성한 베토벤 교향곡 전곡 연주회와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전곡 연주회, 레스피기의 '로마' 시리즈, 변덕스러운 팬데믹 상황 속에 간신히 완주한 슈만 교향곡 전곡 연주회에 이르기까지, 그가 완성시킨 기악곡들은 언어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레토릭을 저절로 상상하게 만들 만큼 적절하고 다채로운 다이내믹과 템포, 그리고 프레이징을 보유하고 있었다. 음표를 단순히 소리의 기호로 해석하는데 그치지 않고 언어의 음악성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지휘자의 내공이 엿보였는데, 극적인 스토리텔링과 음악의 조화를 추구하는 오페라 지휘자에게서 볼 수 있는 특유의 미덕이다. 오케스트라 연주에서 자네티가 드러낸 강점은 비단 이뿐만이 아니었다. 취임 이후 경기필의 연주는 더욱 치밀하고 섬세해졌다는 평가를 얻었다. 관악기의 호흡법부터 현악기의 보잉까지 악단을 구성하는 악기들의 연주 방식 하나하나에 일일이 관여한 지휘자의 치밀한 '간섭'의 결과이다. 또 한 가지 추가된 개성은 밝아진 오케스트라 사운드이다. 음색이 전체적으로 밝고 화사해졌으며 이전에 오케스트라가 지니고 있던 잉여의 무게감을 덜어낸 것은 자네티의 이탈리아인 기질 때문일 것이다. 덕분에 그가 지휘한 베토벤 교향곡은 한층 투명하고 활기가 넘쳤으며, 대위법이 적은 슈만 교향곡의 내려티브는 청량하고 깔끔했다. 그가 다룬 모든 레퍼토리들은 수다스럽지도, 과하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무미건조하지도 않은 효율적인 장점만을 살려냈다. 이러한 장점을 살린 최고의 음악이자 한국 청중들로부터 자네티-경기필 콤비의 가장 사랑받는 레퍼토리는 단연 레스피기의 '로마' 시리즈였다. 기존의 국내 관현악단을 감히 구사할 수 없는 화창하면서도 장엄한 사운드를 정교하게 구사한 그들의 연주는 국내 악단의 연주로는 당분간 두 번 다시 감상할 수 없는 수준의 명연으로 기억될 것이다.

존재하고 살아있어야 할 우리 시대의 음악

경기필과의 마지막 작별 인사로 자네티 감독이 선택한 작품은 베르디의 합창곡 <레퀴엠>이다. 겉은 다르지만 이 작품은 오페라 <돈 카를로>, <아이다>, <오텔로>와 나란히 손꼽히는 베르디의 최고 걸작 중 하나이다. 합창곡이지만 오페라와 전혀 무관하지 않은데 1868년 11월 13일 세상을 떠난 선배 이탈리아 오페라 작곡가 조아키노 로시니를 추모하기 위해 쓴 곡이 이 <레퀴엠>의 마지막 곡인 '리베라 메(Libera me, 나를 구원하소서)'이기 때문이다.

<레퀴엠>은 겉으로 보기에는 가톨릭의 전통적인 라틴어 가사를 사용한 '진혼 미사곡'의 형식을 취하지만 이례적일 만큼 장대한 스케일과 드라마틱한 음악적 성격이 강렬하다. 1874년 완성되어 최고의 음향 효과를 위해 베르디가 엄선한 밀라노 산 마르코 성당에서 작곡가 본인의 지휘로 초연될 당시 110명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와 120여 명의 합창단이 동원되었던 만큼, 장르를 초월해 베르디가 남긴 모든 작품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종교곡임에도 불구하고 초연 이후 교회보다 콘서트홀에서 더 많이 연주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예순이 넘어 완성시킨 베르디의 이 후기작품은 무엇보다 원숙기 시절 작곡가의 모든 작곡기법이 집대성되어 있다. 역동적인 리듬과 풍부한 벨칸토 선율, 극적인 콘트라스트 등 오페라에서 사용했던 각종 효과들은 물론 오페라에서는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카논과 푸가 등 고난도 음악적 형식들을 이 대곡에 아낌없이 쏟아부었다. 압도적일 만큼 드라마틱한 성격 때문에 이 곡은 종교음악이라기보다 오페라처럼 취급되기도 했다. 하지만 작곡가 자신은 이 작품을 “오페라 방식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 선을 분명하게 그었다. 다만 베르디는 이 레퀴엠에서 죽음에 대한 태도를 자신의 방식대로 자유롭게 표현했을 뿐이었다.

늘 찬란하고 화사하게 빛나는 태양과 같은 사운드를 뿜내던 자네티와 경기필이 이 어둡고 육중한 진혼곡의 무게감을 과연 어떻게 소화할 것인지에 대해 청중들은 벌써부터 호기심에 가득 차 있다. 이탈리아 마에스트로가 4년간 이끌었던 악단과의 마지막 작품으로 <레퀴엠>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팬데믹 때 연주하지 못했던 베르디, 그리고 동원하지 못했던 합창단과 대편성 오케스트라에 대한 한풀이만은 아닐 것이다. 지난 4년간 자네티의 선곡은 드러나지 않았을 뿐 모두 우리의 삶은 물론 사회와 연관되어 있었다. 그렇게 그는 우리 시대 오케스트라가 존재해야 할 이유를 음악을 통해 찾았다. 팬데믹 중에 목도한 죽음에 대한 위령, 더 나아가 살아남은 존재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치열한 삶의 고뇌의 메시지를 담은 마지막 무대는 경기필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장엄하고 위대한 송별식이 될 것이다. ◀



글 — 노승림

공연예술전문지 월간 <객석> 음악 담당 기자와 대원문화재단 사무국장을 거쳐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문화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음악을 비롯한 문화 전반에 관련된 글들을 아우르는 음악 칼럼니스트로, 활발한 저술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성악양상블 소리봄
소리에 담아 오롯이 전하는 각자의 계절



우리 소리의 새로운 시작을 열다

꽃바람이 부는 봄날, 진심을 담아 각자의 계절을 노래하는 소리봄을 만났다. 고운 소리가 연습실을 채우는 순간, 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속으로 흠뻑리던 봄의 내음까지 자연스레 빨려 들어가는 듯했다.

“소리봄은 2020년 경기도립국악단의 명칭 변경과 함께 기존 성악팀이 새롭게 얻은 이름입니다. ‘소리로 봄을 연다’는 그 뜻처럼 새롭고 다양한 협연과 공연을 통해 우리 소리의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강권순 악장을 필두로 함영선 수석단원, 하지아 차석단원, 박진하 상임단원, 심현경 상임단원 그리고 조윤영 프로젝트 단원까지 걸어온 시간은 다르지만, 국악이라는 길 위에 소리봄으로 만난 단원들은 이제 그 길을 함께 걷고 있다. 무엇보다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만큼 특정 관객이 아닌 모든 세대, 다양한 계층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소리가 가진 강점이다.

그들의 소개말처럼 우리 전통 음악을 다양한 예술 장르와 융합하는 창의적인 시도로 국악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선도하고 있는 소리봄 그리고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가 새로운 창작극을 선보인다. 바로 사진작가 김용호 그리고 입과손스튜디오와의 호흡을 통해 판소리를 현대적으로 펼칠 <四季(사계)의 노래>다.

이번 공연은 소리봄에게 유독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극의 중심이 되어 전체 무대를 이끌어가는 동시에 개개인의 실제 이야기를 담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단원 모두 지금까지 경험해본 적 없는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공연을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 만난 단원 모두의 표정은 부담이나 떨림이 아닌 설렘으로 가득했다.

관련 내용을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길었던 코로나의 엔데믹 전환과 함께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가 더 많은 관객을 현장에서 만나기 위한 기지개를 켜다. 2022년 레퍼토리 시즌의 문을 연 <장단의 민족>에 이어 전통 음악에 새로움을 더한 색다른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성악양상을 ‘소리봄’을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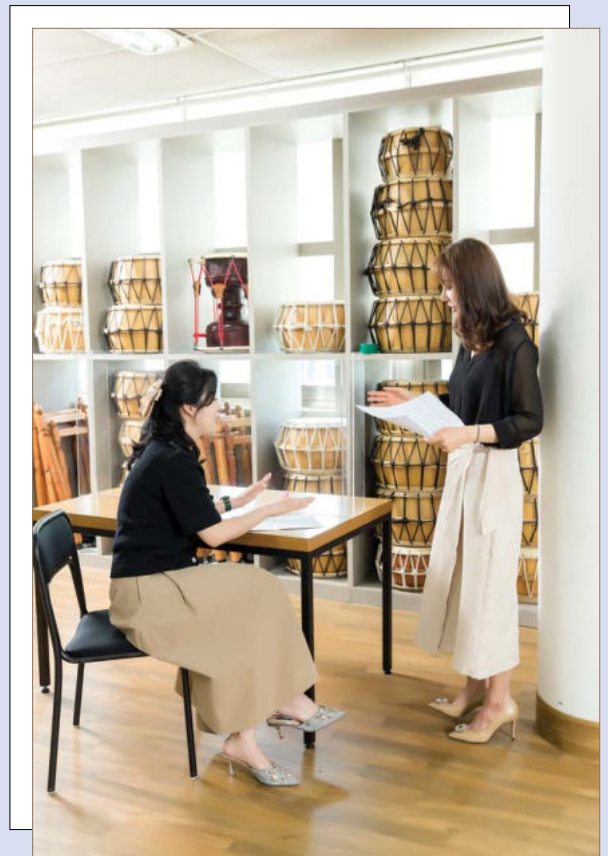


나의 이야기를 담은 관객과의 대화

가슴에 꿈틀거리는 한(恨)을 흥(興)으로 바꾸어 놓는 노래, 민요는 우리의 생활, 감정을 진솔하게 풀어낸 개인의 소리인 동시에 민족의 소리이다. <사계의 노래>는 이 같은 개인 그리고 민족의 소리를 통해 관객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단원들은 국악 인생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사계(四季)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닌 사적인 경험과 인상에 착안해 만들어진 각자의 계절을 뜻하는 제목입니다. 일반적인 전통 창극에 주인공이 있는 것과 달리, 이번 작품은 무대에 오르는 단원 6명 모두 각자의 곡마다 자신의 이야기를 담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죠. 단순한 가창이 아닌 마음을 터놓고 관객과 대화를 나눈다는 마음으로 연습에 임하고 있어요.”

소리봄은 <사계의 노래>는 물론 국악관현악단과 협연하는 <장단의 민족> 막바지 준비와 더불어 역량개발을 위한 워크숍까지 병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경험이 가득한 준비과정에 단원들은 소리를 처음 시작한 소녀처럼 하루하루 즐거움의 연속이다.



그렇다면 준비과정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무엇이었을까?
단원들은 입을 모아 리서치를 뽑았다. 어쩌면 자기 자신도 몰랐던 내 안의 소리와 감정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각자 살아온 인생 속에서 인상적인 기억을 떠올리고,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소리로 바꾸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일상생활이나 다른 공연을 준비하면서 따로 이런 시간을 내는 게 쉽지는 않니까요. 가끔 이렇게 걸어진 길을 돌아봐야 새로운 출발을 가능하게 하는 것 같아요.”

소리봄은 리서치를 통해 숨을 고르고 자신과 주변을, 나아가 타인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자신과 주변으로부터 거리를 가지고 관찰하는 시간은 예술가에게 매우 중요하기에, 관찰하고 질문을 가지고 이에 대해 사람들과 실험해보고 관점을 제시하는 과정, 그 자체만으로 값진 경험이 되었다.

시대와 장르를 초월한 만남

“리서치 과정에서 뽑아낸 단원들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은 김용호 작가의 색다른 시각을 담긴 작품을 더한 두 장르의 콜라보레이션으로 공감과 이해를 돕고, 한 무대에서 사진과 음악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이색적인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계의 노래>의 또 다른 관람 포인트는 국악과 사진이라는 장르의 융합이다. 가사가 아닌 정서를 중심으로 편곡된 곡들은 본래의 이야기와 함께 소리봄 그리고 시나위오케스트라 연주자 그리고 사진작가에게 각각 전달된다.

악단은 그 이야기와 노래가 가진 정서를 연주로 더욱 질게 구성하는 작업을 하고, 사진작가는 자신의 작품 중 그와 닮거나 연상되는 사진들을 덧대어 처음과는 다른 인상을 만들어낸다.

단순히 우리의 것이기에 들어야 한다는 것보다 각자의 삶을 담은 모두의 이야기를 전하는 접근 방식은 전통 음악과 대중 사이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보여진다.

나의 이야기가 너의 이야기가 되고 곧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무대, <사계의 노래>는 전통 음악과 대중 사이의 거리감을 좁히고 '새로운 무엇'을 찾아가는 작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변치 않는 가치를 전하는 소리

시나위오케스트라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이름에서 느껴지듯 즉흥성이다. 이번 공연 역시 소리봄과 악기를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단원 모두 창의성을 갖고 임하고 있다. 작곡자의 전유물이었던 창작의 영역이 무대를 채우는 모두에게 열린 것 수용하기만 하는 연주를 넘어서는 것은 전통 음악이 새롭게 태어나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곡 선택부터 편곡까지 하나하나 연주자들과 상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가창자와 연주자가 자유롭게 재해석하여 완성된 곡들로 꾸며지기 때문에 관객분들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지만 일, 사랑, 만남, 이별 등 인간사에 있어 변치 않는 것은 있기 마련이다. 오래전부터 불려왔던 민요에 변치 않는 가치를 담아 새롭게 선보이는 <사계의 노래>는 현대를 살아가는 관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때로는 우리들의 일상이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것 같지만, 똑같은 순간은 단 한 번도 있지 않은 것처럼 이번 공연을 통해 매 순간에 대한 소중함을 전하고 싶어요.”

소리봄은 노래와 공연을 통해 이 땅에 잊혀가는 소리를 현재에 되살리고 있다. 언젠가 국악이 사람들의 애창이 되고 유행가가 되는 날도 오지 않을까. 삶이 묻어낸 노래를 통해 사람들이 위로를 받기도, 흥이 나기도 하듯 그들의 소리가 이 시대의 진정한 민요가 되길 소망한다. ♫



세상을 아름답게 모두에게 이롭게

일상, 예술이 되다

예술은 모두 함께 누릴 때 더 큰 가치를 얻는다. 사람은 누구나 예술을 향유할 권리와 자격을 가지는 것이다. 예술의 일상화를 위한 모든 창조 활동은 눈부신 빛이 되어 세상을 아름답게 밝힌다. 나눔과 공유를 통해 함께 누리고 즐기는 예술의 현장을 경기도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안양예술공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131

안양

공원의 화려한 변신, 예술을 더하다

관악산과 삼성산 사이에 흐르는 삼성천 계곡을 끼고 있는 안양예술공원은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에게는 안양유원지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한 곳이다. 명맥만을 유지해 오던 안양유원지가 안양예술공원으로 거듭나게 된 데에는 2005년 시행된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 Anyang Public Art Project)의 공이 크다. 지역 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행된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는 단순히 미술관을 짓거나 야외에 조각품 하나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성과 역사성의 맥락을 근간으로 열린 소통을 통해 때로는 유형의 작품으로, 때로는 무형의 가치를 공유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 작가와 시민 그리고 예술이 소통하고, 교류하고 있다. 안양시는 더욱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예술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



제부도 아트파크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190-2

화성

자연과 예술의 만남, 바다를 담은 갤러리



하루에 두 번 육지와 연결되는 길이 열리는 제부도, 독특한 컨테이너 조형물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2017년 낚고 훼손된 섬을 새롭게 탄생시킨 제부도 아트파크다. 경기만 에코뮤지엄 프로젝트로 조성된 아트파크는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리는 문화예술플랫폼으로 기획됐다.

주민들이 제부도에 얹힌 다양한 기억을 그림에 담아내면, 이어서 여행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제부도의 풍경이 그림으로 전시되는 식이다. 유명 작가의 작품은 아니지만, 제부도를 매개로 평범한 이들이 보고 느낀 감정과 추억들이 관람객들의 공감을 끌어내기에 충분하다. 시간이 지나면 누가 무엇을 만들었는가 보다 그곳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가 더 중요해지기 마련. 지역의 문화예술에는 그 지역만의 정서가 들어있어야 차별화된 문화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 제부도 아트파크는 지역을 되살리는 공공미술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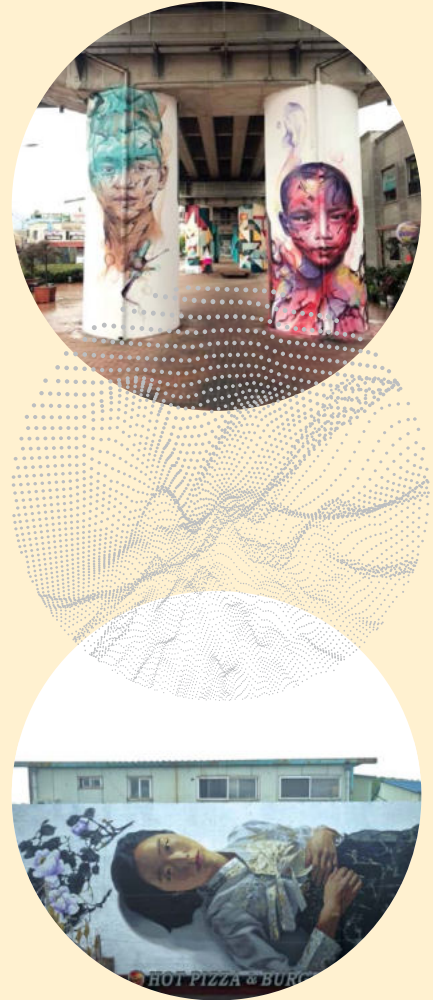


동두천

예술이 된 우리 동네... 일상이 된 현대미술

동두천시 보산동 관광특구는 1980년대 미군을 주 고객으로 가장 변화한 상권을 이루었으나 미군 재배치와 인력 감축으로 구도심화 되어가던 지역이다. 2015년 동두천시는 경기도미술관과 손을 잡고 뚝 끊긴 발걸음을 유도하기 위해 그래피티 아트거리를 조성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거리예술인 그래피티(Graffiti)는 캔버스에 그리는 일반적인 그림과는 달리 벽에 낙서처럼 굵거나 스프레이 페인트로 그리는 그림을 뜻한다. 국내에서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외국의 거리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현대미술 작품이다. 일명 캠프보산 거리예술 프로젝트는 관광특구와 보산역 주변 거리를 탈바꿈시켰다.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 작가와 지역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공공의 예술을 꽃피운 것이다. 모두의 일상이 된 예술이 도시와 시민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



프리뷰, 하나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四季(사계)의 계절>
시간, 공간, 사람을 잇는 이야기

프리뷰, 둘

경기도무용단 2022 레퍼토리 시즌
<하랑 - 함께 날아오르다>
한국 춤의 새로운 세대를 꿈꾼다

프리뷰, 셋

가족 공감 시리즈
<한스짐머 & 히사이시 조 스페셜 콘서트>
영화보다 빛나는 음악, 그 여운을 다시

프리뷰, 넷

경기필하모닉 <베르디 레퀴엠>
삶과 죽음에 관한 깊은 사색
떠나는 거장을 위한 헌사

리뷰, 하나

경기도무용단 <순수, 더 클래식>
시청각적 스펙터클과 경합하는 춤,
한국무용 무대의 새로운 숙제

리뷰, 둘

연극 <친정엄마와 2박3일>
엄마... 다음 생애는 내 딸로 태어나줘

Daily life

On Stage

Art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四季(사계)의 노래〉

시간, 공간, 사람을 잇는 이야기

익숙한 듯 새롭게 국악의 지평을 넓히다

최근 우리 국악의 화두 세 가지를 꼽자면 현대화, 세계화, 그리고 융합일 것이다. 언젠가부터 국악은 원곡의 변용과 모방을 통해 재창조되는 방식으로 옮겨져 왔다. 〈四季(사계)의 노래〉는 이 같은 화두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우리 소리를 전하는 작품이다.

무대는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의 성악양상블 소리붐을 중심으로 정가, 경기민요, 범패, 판소리의 빼어난 눈대목을 골라 새로운 편곡으로 펼쳐 보이며, 익숙한 듯 낯선 소리로 마음을 두드려 모든 관객을 노래의 향연에 흠뻑 빠져들게 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판소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새로운 예술을 탄생시키기로 유명한 창작 공동체 입과손 스튜디오의 참여로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입과손스튜디오와는 지난 2020년 민요 소리극 〈다시 봄〉에 이은 두 번째 협업으로,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무관중 생중계로 진행해야

했던 아쉬움을 지우기 위해 공연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한층 더 완벽한 공연 준비에 매진했다.

다양한 소리가 관객들에게 귀로 듣는 감각을 가득 채운다면 탐미적 사진의 극단을 보여주는 작가 김용호의 사진이 시각적 감각을 일깨운다.

이번 공연은 기획단계부터 '사진'이라는 매체와 '기억'이라는 의식의 단편이 가진 '경험과 인상'이라는 공통속성을 기본에 두고 만들어졌다. 사진과 기억은 주기적으로 되풀이 되지만 때마다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는 계절과 닮았다.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四季(사계)의 노래〉



일시 6.11(토) · 6.12(일) 16시
장소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연락처 031-289-6471~4



장르와 시대의 경계를 넘나드는 다양한 음악으로 차별화된 행보를 보이는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가 새로운 창작극을 선보인다. 2020년 민요 소리극 <다시 봄>에 이은 입과손스튜디오와의 두 번째 호흡이기도 한 <四季(사계)의 노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공연에 목말랐던 관객들의 갈증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계절이라는 시공간을 공유하는 나와 타인들

한 사람의 기억이 해마다 조금씩 새롭게 떠오르는 것, 그리고 하나의 사진이 매년

다른 감흥을 불러오는 것. 이는 우리가 거듭해 계절을 맞는 방식과 비슷하다. 제목의 또 다른 의미로서 개인의 이야기가 담긴 '사적인 계절의 노래'는 이 조그만 단서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상업예술을 넘나들며 사진과 예술의 경계를 허무는 김용호 작가의 작업은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의 모습과 닮아 있어 그 만남이 기대를 갖게 한다.

이 둘의 만남은 기후를 중심으로 구분한 봄, 여름, 가을, 겨울 식의 계절이 아니라, 사적인 경험과 인상에 착안해 만들어진 이미지의 '계절'을 만들어낸다. 빈 무대 위에서 겹겹이 쌓여가는 음악과 이미지들은 70분 남짓한 공연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흘러간다. 시작과 동시에 계속해서 순환하는 것이다. 그 안을 듣고나는 가창자는 자신의 노래로 계절의 일부가 되기도 하고, 그 안을 지나기도 한다. 보는 나와 보이는 나 사이를 오가는 연희자들은 무대와 객석의 개념적인 구분을 허물고 '무대화된 계절'이라는 시공간을 모두와 공유한다.

작품 안에 숨겨진 이야기는 언어를 통한 설명이 아니라, 감각을 통한 감응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보는 이들은 마치 정지된 이미지(사진) 속 사건이나 배경을 추리하는 것처럼 무대 위 펼쳐지는 이야기들을 상상하고, 그것들이 만드는 흐름을 다양한 방식으로 즐기게 될 것이다.

한 사람의 역사, 하나의 노래에 담기다

준비 과정에서 성악양상을 소리본 개개인은 리서치를 통해 자신의 인생에서 인상적인 기억들을 떠올리

고, 그중에 몇 가지를 소리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때 만들어진 노래들은 구체적인 서사(가사)가 아니라 경기민요·정가·판소리 고유의 구성진 맛이나 각 가창자의 음색을 활용한 이미지 만들기 과정의 결과물이다. 이는 실재하는 이야기를 소리화한 것으로 한 사람의 역사가 담긴 '다큐멘터리 소리'이다.

언어가 아닌 정서(취향스와 장단)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곡들은 본래의 이야기와 함께 악단과 사진작가에게 각각 전달된다. 악단은 그 이야기와 노래가 가진 정서를 연주로 더욱 짙게 구성하는 작업을 하고, 사진작가는 자신의 작품 중 그와 닮거나 연상되는 사진들을 덧대어 처음과는 다른 인상을 만들어낸다.

되풀이되는 패턴 안에서 확장하고 변화하는 연주는 이번 공연의 관람 포인트. 전체 무대는 각 곡마다 펼쳐지는 사진 영상과 움직임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가창자가 펼치는 이야기에 대한 일종의 화답이자 추임새를 의미한다.

나의 것이면서 또 다른 누군가의 것일 수 있는 기억과 계절, 무대와 객석을 잇는 공감으로 이야기가 완성되는 색다른 경험을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길 바란다. ◀

경기도무용단 2022 레퍼토리 시즌
〈하랑 - 함께 날아오르다〉

한국 춤의 새로운 세대를 꿈꾼다

처음은 언제나 설렌다. 그러나
동전의 양면처럼 그 설렘에는
불완전함이 공존하기
마련이다. 그 불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세월과 경륜일 것이다. 한국 춤의
새로운 세대를 꿈꾸며
경기도무용단의 미래를
준비하는 무대, 〈하랑 - 함께
날아오르다〉는 설렘과 열정,
경륜과 자신감이 공존하는
신예 안무가들과 중견 안무가의
협업으로 우리 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한층 높이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하랑: '함께 높이 날다'는 뜻을 가진 순우리말

하랑

신구(新舊)의 조화, 함께 무대를 채운다

한국 춤은 전통의 보존과 계승을 중심으로 하는 영역과
한국의 호흡을 간직한 창작의 영역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경기도무용단의 2022 레퍼토리 시즌 〈하랑 - 함께 날아오르다〉는 한국 춤 특유의 호흡과 리듬, 그리고 정서를 시대에 맞게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현대적인 표현을 더한 작품이다.

40분 이내의 2개 창작 작품으로 구성된 무대는 신예 안무가와 내·외부 안무자의 협업으로 만들어진다. 신인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경기도무용단의 최진욱 상임안무와 전북도립국악원 이혜경 무용단장이 도움과 지도의 역할을 맡아 함께한다.





경기도무용단
<하랑-함께 날아오르다>

일시 6.25(토)·6.26(일) 16시
장소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연락처 031-230-3311~4



**진화하는 전통,
가능성의 확장**

하나경 상임단원(안무)이 출연하는 1부 <마지막 이사>는 이 땅의 모든 인생을 향한 헌정을 담은 작품이다. 조선 시대, 문화의 중심지였던 화성 재인청에서 추었던 춤을 모티브로 경기도 도당굿에서 이루어졌던 장단을 새롭게 해석, 변주하여 오늘날의 예술로 재현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관람 포인트는 본질적 탐구와 창의적 성찰을 거쳐 '전통을 현대적으로 시각화한 매력적인 미장센이다. 전통은 낡고 지루하다는 관습을 깨고 꼭 낮은 것만이 새로운 창작이 아닌 익숙한 것끼리의 조우(遭遇)를 통해서도 새로운 미학적 제차(第次)를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친숙한 소리꾼 유태평양의 특별출연으로 춤과 소리의 만남이 만들어내는 시너지가 무대를 가득 채울 것으로 전망된다.

길었던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마지막 이사>가 관객들에게 삶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축원무 : 조상 대대로 무당의 신분을 이어받은 세습무가 추는 춤

“떠난 이도, 남은 이도 그저 슬프지만은 않도록... 떠난 이를 향한 춤의 애도, 남은 공동체의 내일을 위한 축원무”



**경계 너머
성장을 향한 도전**

최은아 상임단원(안무)이 출연하는 2부 <메타 프리즘>는 경계와 성장을 키워드로 자신을 믿고 두려움에 맞서 투쟁

하고 도전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작품이다. 최은아 단원 고유의 한국적인 색채에 세계를 제패한 스트리트댄스 팀 저스트절크 최준호와의 협업을 통한 새로운 시도가 돋보인다. 생각의 틀을 뜻하는 '알'과 한 줄기 희망을 뜻하는 홀로그램의 신비로운 영상미, 장구 장단의 기본인 다스름 장단의 변주로 비트를 재해석하고 한국적인 소리와 기계음을 입힌 현대적 사운드가 융화되어 무용이 낯설고 생소한 사람도 쉽게 입문할 수 있도록 풀어냈다. 관람 포인트는 무용수들의 칼군무와 완벽한 춤의 진행과 구성이 돋보이는 와우 포인트, 끝으로 음악과 작품의 완벽한 조화로움이다.

두 상임단원의 안무가로서의 도전이 기대되는 이번 <하랑 - 함께 날아오르다>를 통해 한국 춤의 새로운 세대, 새로운 작품, 새로운 예술을 보다 많은 이들과 함께 만나길 기대한다. ◀

**함께
날아오르다**



가족 공감 시리즈
 <한스 짐머 & 히사이시 조 스페셜 콘서트>

영화보다 빛나는 음악, 그 여운을 다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지브리 애니메이션 등 영화를 생각하는 순간, 귓가에 울리는 음악이 있기 마련이다. 그 감동을 오케스트라 실황으로 재현하는 공연이 찾아온다. 국내 최정상 연주자들이 함께하는 <한스 짐머 & 히사이시 조 스페셜 콘서트>는 어른들에게는 지난 추억을 아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선사하며 온 가족을 위한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스 짐머



히사이시 조



피아니스트 박주영



유광 지휘자



소프라노 신델라



**스크린 속
멜로디를
공연장으로**

영화의 감동을 배가시켜 주는 영화음악은
때론 영화보다 더 오래 사랑받기도 한다.
누구나 가슴 속 하나쯤 간직하고 있을 인

생의 O.S.T, 그 여운을 공연장에서 다시 살려보는 건 어떨까? 오
는 6월 29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선보일 <한스 짐머 & 히
사이시 조 스페셜 콘서트>는 익숙한 영화음악을 라이브 연주로
듣는 특별한 공연이다.

관객들은 본 공연에서 영화음악계의 거장으로 불리는 '한스 짐
머'와 '히사이시 조'의 명곡을 오케스트라 선율로 감상할 수 있
다. 지휘자 유광이 포디엄에 오르고, 서울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
라의 연주와 피아니스트 박주영, 소프라노 신델라의 협연으로
그동안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았던 두 작곡가의 영화 O.S.T를 더
욱 생동감 있게 만날 수 있는 무대이다.

한스 짐머와 히사이시 조는 영화음악계에서 각자의 음악 세계
를 구축하며 거장으로서 입지를 다져온 작곡가로, 영화와 애니
메이션 등 수많은 작품에서 인상 깊은 영화음악으로 관객들에
게 감동을 선사한 바 있다. 특히 두 작곡가 모두 국내 영화, 음악
애호가에게서 꾸준히 사랑받아온 바 있으며, 팬층이 두텁기로
유명하다.

**함께 나누는
문화생활의
기쁨**

경기아트센터가 준비한 특별한 티켓 할인 혜택도
눈에 띈다. 매월 마지막 주는 평등한 문화 환경 조
성과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경기도 문

화의 날' 주간이다.

경기아트센터는 6월 마지막 주 '경기도 문화의 날'을 맞아, 더 많은 관객들이 콘
서트를 즐길 수 있도록 콘서트를 관람하고자 하는 모든 관객에게 기존 티켓 가
격에서 30%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연예매는 경기아트센터 홈페이지
(www.ggac.or.kr)와 인터파크 (ticket.interpark.com)에서 가능하다.

영화음악이 가진 클래식한 측면을 살리는 동시에, 영화란 매체가 주는 친숙
함을 전하는 이번 공연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조금 더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의 기쁨을 안겨줄 것이다. ♪

**오케스트라로
재현하는
명장면의 감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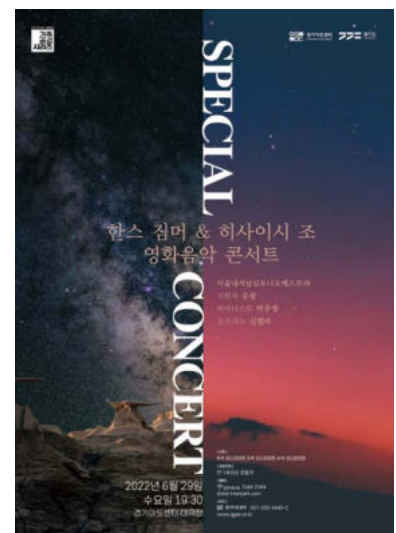
이번 <한스 짐머 & 히사이시 조 스
페셜 콘서트>에서는 극장 혹은 CF,
라디오에서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두 작곡가의 명곡을 선보일 예정으로, 모든 곡은 오케스트라 연
주에 알맞게 편곡된 버전으로 연주된다.

한스 짐머의 작품으로는 <He's A Pirate>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A Dark Knight> (영화 '다크나이트') 등 4곡이, 히사
이시 조의 작품 중에는 <인생의 회전목마> (영화 '하울의 움직이
는 성'), <언제나 몇 번이라도> (영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등
4곡이 연주된다.

특히, 예술문화의 생활화와 고급화를 통한 삶의 질과 수준 향상을
목표로 음악인들과 애호가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기대를 모
고 있는 서울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가 선보일 깊이 있는 연
주는 영화음악이 주는 감동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클래식 아이돌이라 불리며 뛰어난 연주력으로 국내는 물
론 해외 무대에서 잇따른 러브콜을 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박주
영과 뮤지컬과 팝, 가요, 드라마 O.S.T까지 중형무진 활약하며
클래식의 숨은 매력을 대중에게 전하는 소프라노 신델라가 참
여해 무대를 한층 풍성하게 채울 예정이다.



**가족 공감 시리즈
<한스 짐머 & 히사이시 조 스페셜 콘서트>**

일시 6.29(수) 19시 30분
장소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연락처 031-230-3440~1



경기필하모닉

베르디 레퀴엠 (G. Verdi, Messa da Requiem Op.48)

삶과 죽음에 관한 깊은 사색

떠나는 거장을 위한 헌사

진혼곡(鎮魂曲), 즉 죽은 이를 위한 위령 미사곡이라는 뜻을 가진 레퀴엠은 삶과 죽음에 대한 작곡가의 깊은 사색의 결과물로, 인생의 생사고락이 모두 담겨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는 7월, 마시모 자네티 감독의 고별무대이기도 한 이번 공연을 앞두고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감수성을 자극하고 호소하는 베르디 특유의 감성을 경기필하모닉이 어떻게 표현할지 클래식 애호가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1 김우경
- 2 마리아나 피졸라토
- 3 손현경
- 4 안토니오 디 디마테오



영혼을 올리는 망자의 오페라

베르디 레퀴엠은 그의 종교음악 중 가장 규모가 큰 작품으로 오페라의 극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어 모차르트 레퀴엠과 더불어 가장 사랑받는 레퀴엠 중 하나다. 이 작품은 특별한 탄생 배경을 가지고 있다. 바로 베르디가 존경해마지 않았던 두 위인의 죽음이다. 베르디는 19세기 이탈리아 오페라의 선구자 조아키노 로시니(Gioacchino Rossini)를 추모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곡 '리베라 메(Libera me)'를 썼고, 역시 이탈리아의 대문호 알레산드로 만초니(Alessandro Manzoni)의 서거 1주년을 기념하는 공연을 위해 전곡을 완성한 것이다. 존경하던 이들에 대한 최고의 경외심을 표하기 위해서였을까, 베르디는 자신의 원숙함을 유감없이 발휘해 역사상 가장 강렬하고 장엄한 레퀴엠을 빚어냈다.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을 음악으로 옮긴 듯, 생(生)과 삶(死)의 신비와 죽음을 맞닥뜨린 공포를 생생히 전하는 이 레퀴엠은 단순한 종교음악이 아닌 죽은 자들을 위한 오페라처럼 보인다.”

베르디의 전기(傳記)를 저술한 프랑스 작가 알랭 뒤오(Alain Duault)는 베르디의 레퀴엠을 가리켜 ‘망자(亡者)의 오페라’라고 표현했다.

레퀴엠의 장대하고 극적인 구성을 관객들에게 생생히 전하기 위해 마시모 자네티를 비롯한 경기필하모닉은 그동안 함께 쌓아온 모든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웅장하고 다채롭게 진한 감동을 전하다

경기필하모닉을 통해 새롭게 재현될 베르디 레퀴엠의 관람 포인트는 2악장 ‘진노의 날(Dies Irae)’이다. 광고, 영화 등에서 자주 사용되어 대중에게도 익숙한 곡이지만 웅장함을 한층 더하는 경기필하모닉만의 하모니로 선보일 것으로 예고되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메조소프라노 마리아나 피졸라토와 베이스 안토니오 디 마테오의 첫 내한 무대로 국내 관객과의 첫 만남이라는 의미를 더했다. 이처럼 새로운 만남과 아쉬운 헤어짐을 담은 이번 공연은 독창, 중창, 합창 등 다양한 구성으로 풍부하고 아름다운 선율을 만끽하는 동시에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 오케스트라의 자존심, 경기필하모닉의 또 다른 시작을 전하며 진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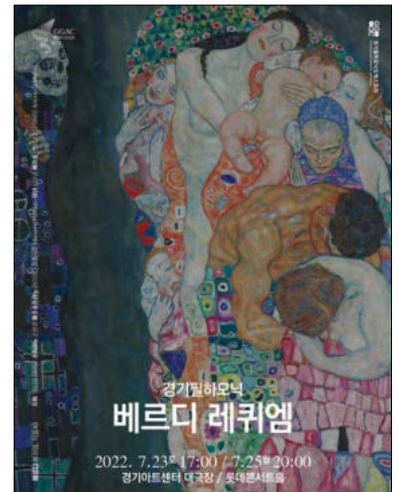
강렬한 울림을 남길 거장의 고별무대

7월 23일, 25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과 롯데콘서트홀에서 펼쳐질 이번 공연은 경기필하모닉에게도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바로 2018년부터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음악 감독직을 맡아온 마시모 자네티와의 작별이다.

이번 공연 지휘를 끝으로 4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마시모 자네티 감독은 취임 이후 괄목할만한 성장을 통해 경기필하모닉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림과 동시에 전문가와 관객 모두로부터 호응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네 명의 독창자, 혼성 4부 합창, 대편성 오케스트라가 필요하며, 총 연주 시간이 약 90분에 달하는 레퀴엠의 장대하고 극적인 구성을 관객들에게 생생히 전하기 위해 마시모 자네티를 비롯한 경기필하모닉은 그동안 함께 쌓아온 모든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소프라노 손현경, 메조소프라노 마리아나 피졸라토(Marianna Pizzolato), 테너 김우경, 베이스 안토니오 디 마테오(Antonio Di Matteo)와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등 약 200여 명의 연주자들이 무대에 오른다.



경기필하모닉 <베르디 레퀴엠>



일시 7.23(토) 17시·7.25(월) 20시
장소 경기아트센터 대극장·롯데콘서트홀
연락처 031-230-3324~5

시청각적 스펙터클과 경합하는 춤,
한국무용 무대의 새로운 숙제

경기도무용단 순수_더 클래식



우리의 전통춤과 서양 음악의 만남, 공연 각 분야의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의 의기투합 등으로 주목을 받은 <순수_더클래식>은
클래식 선율 위에 얹어진 우리 춤의 호흡과 리듬이 만들어 내는
아름다움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강렬하게 흔들었다.

춤으로 잇는 공간, 시간, 사람

4월 15일부터 3일간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선보인 경기도무용단의 <순수_더 클래식>은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의 협연 소식으로 공연 전부터 큰 기대를 모았다. 경기필과 함께 예인집단 아라한이 음악과 소리를 맡아 동서양의 어울림을 들려주고, 서태지와 싸이 등 대중가수들의 대형 콘서트 무대를 연출해 온 유잠스튜디오의 유재현 대표가 미술감독으로, 주로 공연용 한복 의상을 제작하는 '옷 짓는苑'의 김지원 대표가 의상디자이너로 참여해 시각적 아름다움을 책임졌다. 김상덕 예술감독의 총괄 아래 국립무용단 수석 윤성철이 안무를 맡았다.



프롤로그와 본편, 에필로그로 구성된 무대는 열 가지 전통춤을 주제별로 배치해 스토리텔링을 꾀했다. 프롤로그에서 강강술래로 풍작과 풍요를 기원하며 시작된 무대는 1장에서는 '순수한 땅'이라는 제목으로 태평무, 한량무, 부채산조를 차례로 선보이며 '부채'라는 공통점 아래 춤이 가진 각각의 묘미를 보여준다. 2장 '생명의 태동'에서는 진도복춤과 장구춤으로 타악과 함께 장 제목 그대로 생명의 태동을 느낄 수 있는 신명 나는 춤사위를 펼치고, 3장 '회한의 시간'에서는 신칼대신무, 살풀이, 지전춤으로 구성된 진혼무 연작 무대로 죽은 넋을 위로한다. 그리고 에필로그의 학춤은 전통춤에서 학이 은유하던 선비의 모습보다 신선에 가까운 모습으로 연출되어 풍류를 즐기며 즉흥적인 춤사위를 펼치는 것이 아닌, 죽음 이후 학이 되어 천상을 자유롭게 날아가는 듯 신비롭고 웅만한 모습으로 마무리된다.

예술과 전통의 새로운 해석

2장과 3장의 연결, 생명에서 죽음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전개가 다소 갑작스럽긴 했지만 2회차 공연이 올려진 4월 16일은 세월호 사건 8주기가 되는 날로, 추모 무대로 마련된 것이 아닐지라도 공연을 통해 예술과 사회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또한 예술과 예술가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금 사유하게 하며 새로운 의미가 덧대어졌다. 경기필과의 협연을 통해 동서양 예술의 하모니를 보여주는 것은 이 공연의 기획의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3장의 살풀이는 전체 공연 가운데 제작진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무대였다. 본디 살풀이는 무속의식에서 액(厄)을 풀어낸다는 뜻인데, 이에 따라 살풀이춤은 무악(巫樂)의 반주에 맞추어 흰옷에 웃고름을 늘어뜨리고 흰 수건을 손에 든 채 맺고 어르고 푸는 세 가지 기본 동작을 중심으로 추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번 공연에서는 음악을 비탈리의 '샤콘느' 연주로 바꾸는 파격적인 시도와 함께 새로운 살풀이를 보여주었다. 비탈리의 샤콘느에 붙여진 '지상에서 가장 슬픈 곡'이라는 별칭은 이 곡이 실린 하이페츠의 바흐 콘체르토 음반이 한국에 발매되었을 때 <객석> 기자였던 음악칼럼니스트 조희창이 한국판 음반 매뉴얼에

쓴 글에서 유래된 것으로, 그러나 이 같은 이질적인 협연의 어울림은 슬픔이라는 같은 정서를 공유해서가 아니라 살풀이와 비탈리 샤콘느가 갖는 춤적, 음악적 특질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설득력 있다.

세계 무대를 향한 가능성의 발견

본디 무곡인 비탈리 샤콘느에서 셋 잇단음표나 여섯 잇단음표, 싱코 페이션 같은 다양한 리듬과 스타카토나 스피카토, 더블 트릴 같은 화려한 기교를 접하는 동시에 살풀이춤의 반주 음악 전개가 살풀이 장단이나 굿거리장단으로 시작해 자진모리장단으로 넘어가며 초반의 구슬픈 느낌이 경쾌한 장단과 함께 화려한 음색으로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춤사위 역시 살을 푸는 제의적 모습보다 한에서 신명으로 승화되는 기예적 양상으로 나타나는 데에서 유사성을 찾을 수 있는데, 이 유사성에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디오니소스적 열정이라 할 것이다. 이 같은 파격에 조용하듯 대극장 무대 전체를 다 차지하는 커다란 원형 조명과 달항아리처럼 둥글게 부풀린 치마 등 춤과 음악을 떠받치는 시각적 스펙터클에도 매우 신경 쓴 모습이었지만 각각의 요소들은 공연이 진행 중인 무대라는 동일한 시공간 안에서 제각각 존재하며 연출자가 의도한 색다른 조화의 묘를 보여주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지난해 9월 임기를 시작한 김상덕 예술감독은 취임 일성으로 경기도만의 콘텐츠를 개발하되 경기도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국뿐 아니라 세계로 나아가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지난 가을 초연된 <경합>이 권번으로 유명한 수원 의역사성 위에 정구호의 감각적인 미장센으로 현대성을 입히는 것으로 그의 비전을 보여주었다면 이번 <순수더 클래식>은 동서양 예술의 어울림으로 그의 일성이 입에 발린 취임사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음을 새삼 확인시켜주었다. 다만 공연을 둘러싼 시청각적 스펙터클의 압도적인 힘에 비해 몸에서 비롯되는 춤 고유의 힘이 되려 약화된 것은 앞으로 경기도무용단이 풀어나가야 할 새로운 숙제로 보인다. ◀

글 — 윤단우

작가 공연칼럼니스트. 주로 사람과 사랑과 삶에 관한 생각의 편린들에 대한 글을 쓰며 댄서가 반짝이는 무대와 숨찬 마감이 기다리는 데스크를 오가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취재와 비평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연극 <친정엄마와 2박3일>

엄마... 다음 생애는 내 딸로 태어나줘



100분간의 행복 여행

지난 5월 8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무대에 오른 연극 <친정엄마와 2박3일>이 관객들을 가장 마음 따뜻해지는 순간으로 데려갔다. <친정엄마와 2박3일>은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2009년 초연 이후 10년 동안 사랑받아온 스테디셀러 연극이다. 강부자, 윤유선, 장하란이 주

연을 맡은 <친정엄마와 2박3일>은 전국 각지에서 감동의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아버이날을 맞아 모처럼 가족 단위 관객들이 연극 나들이에 나섰다. 경기아트센터 입구에 마련한 포토존 앞은 기념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로 북적댔다. 여기저기 눈에 띄는 붉은 카네이션, 너도나도 얼굴엔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힘든 순간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할 말 못 할 말 비수 같은 말을 쏟아내도
 미소 짓는 사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매불망 자식 걱정뿐인 단 한 사람.
 이름만으로도 눈시울이 붉어지는
 그 이름 '엄마'다.



미우나, 고우나
 세상 하나뿐인
 내 새끼

<친정엄마와 2박3일>은 대학 공부를 마
 치고 서울로 시집간 딸, 미영과 당신은 냉
 골에 묵을지언정 딸에게 아랫목 가장 따

뜻한 자리를 내어주는 친정엄마와의 가슴 시린 사랑 이야기를 담
 고 있다.

서울로 시집갔던 딸 미영은 연락도 없이 친정집을 찾는다. 전화 한
 통 살갑게 받아준 적 없는 야속한 딸이지만, 버선발로 한달음에 뛰
 어나가는 엄마. 반가움도 잠시였을 뿐이고 엄마는 시집간 딸이 홀
 로 친정집으로 온 모양새가 영 불안하다. 미영은 친정집에 몸을 누
 이자 이내 향수에 젖어 든다. 머릿니를 없애겠다며 '하이타이'로 머
 리를 감겨 주던 엄마, 애써 기른 토끼를 보양식으로 만들어버린 원
 망스러운 아빠, 친정집은 늘 미영에게 안식처이자 바쁜 생활에서
 잠시나마 숨통 트이는 공간이다.

어딘지 맞지도 않는 철 지난 옷을 입고, 겨우내 전기장판 하나로
 버텨 온 억척스러운 엄마는 딸 미영만 보면 못 해준 일 들만 떠올
 라 마음이 괴롭다. 딸 가진 죄인이랍시고 모진 시집살이에 말 한마
 디 거들어주지 못 한 일, 못난 애미 딸로 태어나 땀땀거리며 살아
 가지 못했을 딸의 인생이 전부 당신 탓인 것만 같다. 엄마는 그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나 같은 인생 살지 않길 바랄 뿐이었다.

자랑스러운 내 딸 미영이가 반장이 됐을 때도 남들 다하는 촌지
 하나 못 한 게 아쉬워 몸뚱이로 때우겠다고 고집부린 당신이었는
 데 오죽했을까. 이런 엄마의 마음을 미영도 모를 리 없지만 모진
 말이 톡톡 튀어나온다. '날 왜 낳았냐'며 원망 섞인 투정도 해 보지
 만 엄마는 다시 태어나도 우리 엄마로 살겠단다. 그러던 때, 딸 미
 영이 불치병에 걸렸다는 청천벽력 같은 비보를 듣게 된다.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엄마는 하늘이 원망스럽다. 차라리 날 데려가 달라
 고 울부짖어 보지만 듣는 이 하나 없는 공간엔 관객들의 훌쩍거림
 만 새어 나올 뿐이었다.





세상 모든
아들 딸들에게

마지막을 준비하는 엄마와 딸의 모습을 보며 관객들은 어느새 자식 하나만을 바라보고 억척스럽게 살아왔을 우리네 엄마의 얼굴을 떠올린다.

더욱이 실제에 가까운 생활 연기와 세밀한 심리묘사는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특히 국민 엄마, 배우 강부자의 웰메이드 연기는 관객들의 심금을 울렸다. 연극 <친정엄마와 2박3일>은 화려한 세트도, 초호화 출연진도 없다. '엄마'라는 단어 하나가 주는 묵직한 울림이 전부였을 뿐. 극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바쁜 하루를 살아가는 이 땅 위 모든 아들, 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친정에 와서 잠시 쉬었다 가라고, 언제든지, 얼마든지 엄마 품에 와서 편히 지내다 가라며, 내 새끼 이제는 그만 아파하라며, 엄마의 아들로 딸로 태어나줘서 고맙다며. ◀



글 — 박혜림

여행이 좋아 열차 승무원이 됐고 빵이 좋아 빵 공장에서 일을 했으며 사람이 좋아 기자를 시작했다. 기자계의 보헤미안, 현재 인천일보 문화부 기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MBTI는 ENFP다.

예술이 만난 인문학

일상과 예술 사이,
문학 언어는 어떻게 발명되는가

트윅작

좀비 전성시대, 괴물계의 챔피언이 되다

컬처로드

일상과 예술이 공존하는 오스트리아, 빈

예술 알고리즘

과학과 기술을 만난 예술세계 이야기

#공감태그

#독자참여 #SNS 공연리뷰

ONF Talk

Daily life

Art



일상 과 문학언어는 어떻게 발명되는가 예술 사이



표현, 생소하지만 생생하게

언어가 가진 근원적 한계 때문에 소통의 어긋남은 이미 예견되어 있는 것인지 모른다. 가령 '사랑한다'라는 말에 대해 말해보자. 이 말은 특정한 감정과 감각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너무나 익숙하고 흔하기 때문에 그 진정한 의미는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사랑의 말들은 정확한 발화의 시간과 표현의 무게를 가늠하기 어렵다. '사랑한다'라는 말은 대부분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은 말이거나,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말이 되어 버린다. 사랑의 감각을 정확하고 생생하게 표현하고 싶다면 다른 사랑의 말이 '발명'되어야 한다. 전계수 감독의 영화 <러브 픽션>에서 오래된 연인들은 '사랑해'라는 말의 상투성을 벗어나기 위해 둘만의 다른 언어를 발명한다. 방울토마토에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사랑의 말은 다음과 같다.

나는 너를 방울방울해

'방울방울해'라는 말은 '사랑해'라는 말을 대체한 둘만의 언어이지만, '방울방울해'의 뉘앙스는 '사랑해'라는 말의 감각과는 다르다. '방울방울해'의 표현은 귀엽거나 상큼하거나 발랄한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고, 혹은 관능적인 뉘앙스로 느껴질 수도 있다. 사실은 이 언어가 '발명'됨으로써 하나의 다른 감각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문맥에서 '방울방울해'는 '사랑해'라는 말의 동의어가 아니라, 다른 차원의 감각을 호출하기 위해 발명된 언어이다. 이런 언어야말로 그 본연의 의미에서 '시적인' 언어이다.

문학의 언어는 일상적 언어와 어떻게 다른가. 언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을 위한 것이지만, 모든 언어가 투명한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느끼는 감정과 사유와 감각 중에는 언어화되지 못한 것들이 많고, 이미 언어화되어 있는 것들은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 이상한 문장은 ‘그 사람’의 고통에 대한 ‘나’의 내적 태도를 예리하게 보여 준다. ‘그 사람’의 고통은 마치 ‘나’의 신체의 고통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나’는 ‘그와 더불어’ 한 몸처럼 괴로워한다.

문법 너머 공감으로 소통하는 문장

롤랑 바르트의 『사랑의 단상』은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등을 대상으로 독특한 다시 쓰기를 구현한 사랑의 담론이다. 80개의 단상으로 구성된 이 책이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계기가 된 문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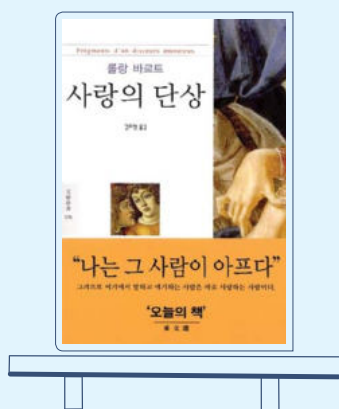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

롤랑 바르트,
김희영 역,
『사랑의 단상』,
동문선, 2004.

이 문장은 신체적인 통증을 가리키는 ‘나는 머리가 아프다’와 같은 문장의 변형으로 볼 수도 있다. 저자는 미슐레(Michelet)의 ‘나는 프랑스가 아프다’의 선례를 따랐다고 밝히고 있다.

이 문장은 1인칭 주어와 3인칭 주어가 한 문장 안에 동거하는 기이한 구조를 가진다. ‘나는 머리가 아프다’의 경우, ‘머리’는 ‘나’의 신체적 일부이기 때문에 ‘나’의 범주 안에 속한다. 그런데 3인칭 그 사람은 ‘나’의 외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장은 비문처럼 보인다.

이 이상한 문장은 ‘그 사람’의 고통에 대한 ‘나’의 내적 태도를 예리하게 보여 준다. ‘그 사람’의 고통은 마치 ‘나’의 신체의 고통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나’는 ‘그와 더불어’ 한 몸처럼 괴로워한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아프고, ‘그가 아픈 것은 ‘내가 아픈 것과 같다는 감각을 떠올릴 수도 있다. 한 사람의 고통을 향한 최대의 연민은 새로운 사랑의 언어를 발명해낸다.



영화
<러브픽션>



文學言語





시의 상상적인 언어들은 더 나아가 세상에 등장한 적이 없는 미지의 이미지를 통해 최초의 감각을 선물한다.

최초의 감각을 체험하는 시의 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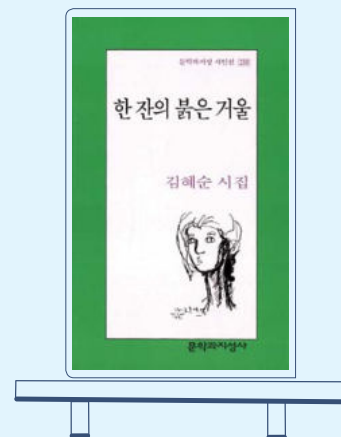
“꽃이 핀다”라는 익숙한 문장이 있다고 해보자. 어떤 시인은 ‘꽃이 열린다. ‘꽃이 터진다, ‘꽃이 폭발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때 꽃의 개화에 대한 감각은 달라지고 낯설고 생생한 사건이 된다. 문학의 언어 특히 시의 언어는 감각을 다른 차원으로 옮겨놓는 발명된 언어이다. 시인은 언어의 투명한 가능성을 믿기보다, 불가능성과 한계를 알기 때문에 다른 언어를 찾아내려는 무모한 시도를 하는 사람이다. 시의 상상적인 언어들은 더 나아가 세상에 등장한 적이 없는 미지의 이미지를 통해 최초의 감각을 선물한다.

그러다가 그러다가
그만 당신에게 덤석
잡아먹힌 적 있었나요
이상하지요

당신이 날 잡아먹었는데
내가 당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내 속에 날아든 것 같았어요
당신의 얼굴이 새처럼 작아지고
그 새가 내 몸속에서 날아다녔지요

김혜순
〈새가 되려는 여자〉
부분,

『한 잔의 붉은 거울』,
문학과지성사,
2004



새와 몸과 사랑에 관한 상상력의 차원에서 이 시가 주는 상상적 충격은 강력하다. ‘새가 되려는 여자’는 새를 통해 상상적 세계에 진입한다. ‘당신’이 날 잡아먹었다거나, ‘당신’이 새가 되어 내 몸속에 날아다닌다거나 하는 상상력은 독특하고 그로테스크하며, 이 묘사를 통해 언어화되지 않았던 사랑의 ‘사건’이 펼쳐진다. 이 상상적 사건은 사랑에 대한 새로운 관념이나 지식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익숙한 관념들을 경유하지 않는 낯선 몸의 리듬을 감각적으로 체험하게 만든다.



문학이 발명해낸 낯선 사랑의 언어

그러면 소설의 언어는 어떻게 발명되는 것일까? 발명이라는 차원에서 소설의 언어는 일상적 언어와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다. 소설의 언어는 언어와 사건의 다른 배치와 시선을 통해 경험한 적이 없는 장면들을 만들어낸다.

몇 번 세계 구르기를 반복하며 허공에 높이 올라가면
당신 방의 창문에 붉은 불빛이 보이고 그 창 너머 옆드린
당신의 검은 머리와 반만큼 들려진 이마가 보인다.
나는 힘껏 그네를 구른다. 그네가 뒤집어질 듯 높이 올라
가면 치마가 날리고 드러난 다리 사이로 바람이 부드럽고
미끄럽게 드나든다.
치마가 부풀기 시작한다. 가슴이 물결처럼 출렁이고 짝
조인 치마 말기 아래 심장이 더 세게 출렁인다. 치마는
점점 둥글게 낙하산처럼 펴져서 곧 당신의 창문을 뒤덮고
지붕을 압도한다.

당신은 절대로 고개를 들지 않는다.

① 오정희,
<직녀>, 『불의 강』,
문학과지성사,
2017

오정희는 여성적인 시선을 정밀하게 구현함으로써 한국소설의 새로운 차원을 열었다. <직녀> 역시 1인칭 여성 서술자의 시점에서 진행되는 소설이다. 이 소설의 서술자는 남자인 ‘그’를 기다리고 관찰한다. 남성의 시점에서 여성을 대상화하는 근대 이후 한국소설의 전형적인 구조를 벗어나는 이 소설에서, 반복되는 문장 유형은 ‘당신이 보인다.’와 ‘당신이 보이지 않는다.’이다. ‘당신’이 보였다가 보이지 않는 반복적 상황을 아름답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나’의 그네 타기 장면이다. 여성의 신체가 실린 그네의 운동에 따라 ‘당신’을 보는 ‘나’의 시선은 움직이고, ‘당신’은 순간적으로 보였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나’의 그네 운동 안에서 ‘당신’의 ‘현전과 부재’가 반복된다. 이 아름답고 쓸쓸한 경험이야말로 사랑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문학은 낯선 사랑의 언어를 발명한다. 혹은 사랑은 문학의 언어를 발명한다. ◀



글 — 이광호

문학과지성사 대표. 1988년 중앙일보 신춘문예로 등단. 문학 평론가가 되었으며, 『세계의 문학』 편집위원과 『문학과 사회』 편집 동인으로 일했다. 20년 동안 서울예술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책을 쓰고 또 만드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

좀비 전성시대, 괴물계의 챔피언이 되다

장르문화에는 언제나 죽음에서 돌아온 우리의 이웃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 어떤 존재도 지금의 '좀비'만큼 다양하게 변주되고 강력한 생존력을 가진 소재는 없었다. 과연 좀비는 강시, 뱀파이어와 무엇이 다르기에 온 세상을 짜릿하게 마비시키고 있을까



한복과 교복을 입은 좀비

언데드(Undead). 죽은 채로 걸어 다니는 존재. 혹은 죽지 못한 채 세상을 활보하는 이형인간들을 총칭하는 이름이다. 다양한 장르문화 속에서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언데드 몬스터를 친근하게 접할 수 있다. 강시와 뱀파이어가 그 대표격이라 할 수 있다. 어릴 적 코흘리개 아이들에게 공포의 제왕으로 군림했던 존재는 단연코 <귀타귀>나 <강시선생> 등에서 볼 수 있는 홍콩 영화의 강시였다. 이마에 노란 부적을 붙인 채 양팔을 나란히 한 자세로 쿵쿵 뛰다니며 괴력을 발휘하는 요괴. 이마에 붙은 부적이 떼어지는 순간 산 사람의 피를 빨아먹기 위해 폭주하는 불멸의 귀신. 그보다 조금 더 머리가 자란 뒤엔 <뱀파이어와의 인터뷰>, <트와일라잇>, <렛미인> 등으로 대표되는 뱀파이어 영화의 색시함에 사로잡혔다. 괴물계의 귀족이라 할 수 있는 이 흡혈귀들은 오랫동안 공포와 관능을 넘나들며 스크린을 활보했다. 하지만 이제는 강시도, 뱀파이어도 대세라 부를 수 없게 된 지 오래다. 명실상부 가장 사랑받는 언데드는 좀비(Zombie)라 할 수 있다. 범람한다고 표현해도 될 만큼 다양한 좀비물이 영화관뿐 아니라 안방극장마저 대체하고 있다. 게임 <바이오하자드> 시리즈와 이를 원작으로 6편이나 만들어진 영화 <레지던트 이블>, <월드워Z>, <워킹데드> 등 세계적인 좀비물의 대유행의 수혜를 우리 또한 정면으로 받았다.

이뿐인가. <부산행>을 필두로 <킹덤>, <창궐>, <#살아있다>, <지금 우리 학교는> 등 한국형 좀비물도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다. 환갑이 넘으신 내 어머니도 이제 좀비가 무엇인지 아신다. '그거 사람 무슨 시체 아녀?' 본질을 꿰뚫는 통찰이다.

강시는 추억 속의 존재가 되어버렸고 뱀파이어 또한 오랜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다면 어쩌서 좀비는 세계를 점령할 수 있게 되었을까.

글 — 임태운

한국 SF계의 전천후 스토리텔러. <마법사가 곤란하다>, <태릉 좀비촌>, <화이트블러드> 등의 소설책 집필과 <장르의 장르>, <한국 창작 SF의 거의 모든 것>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창작활동을 펼치며, 건빵의 별사탕처럼 읽는 이의 가슴에 당분처럼 스며드는 글을 쓰고 있다.

좀비는 미래지향적 괴물

이미 죽은 시체가 일어난다. 어지간한 피해로는 물리칠 수 없다. 접촉하면 전염된다. 강시, 뱀파이어, 좀비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정체성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스토리텔러의 입장에서 보면 셋은 전혀 다른 본질을 갖고 있다. 독배기와 프라이팬이 서로 다른 것처럼, 비슷한 소재를 써도 완전히 판이한 맛을 가진 요리가 나온다.

강시는 전쟁터에서 '객사' 당한 병사들이 고향에 돌아와 묻히지 못할 경우 원귀가 된다는 도교적 세계관에서 출발한 요괴 캐릭터다. 대량의 시체를 한정된 인력으로 운반하기 위해 두 개의 막대기에 시체 여러 구를 묶어서 운반하는 모습이 '쿵쿵 뛰는 시체'인 강시의 원형. 그렇기에 강시물에선 영화 도사라는 명확한 퇴치법이 존재한다. 동아시아의 여러 민담과 설화에서 핵심이 되는 '한(恨)'의 정서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강시 이야기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



K-Zombi

반면 뱀파이어는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인류의 공포가 설화와 민담을 통해 피와 살을 갖게 된 케이스다. 장르적인 특성으로 보면 수백 년을 늙지 않고 살아가는 존재의 권태감이나, 목덜미를 물어 피를 빨다는 코드가 청춘물과 로맨스와 결합해 다양한 클리셰가 만들어졌다. 다른 장르들보다 십자가를 두려워한다는 점에서 종교적인 색채가 들어 있는 것도 드물지 않다.

강시물과 뱀파이어물의 공통점은 '유연하지 않다'는 점이다. 장르가 지켜온 클리셰가 흔들리면 본질적인 재미 또한 잃게 되기 쉬워서 다양한 장르와 결합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좀비는 다르다. <워킹데드> 같은 전통 좀비물 뿐 아니라 테크노액션을 버무린 <레지던트 이블>, 코메디에 좀비를 섞은 <새벽의 황당한 저주>, 영어덜트 로맨스에 가까운 <웜바디스> 등 찰떡처럼 다른 장르에 스며들 수 있다.

그것은 좀비가 상징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 숨 쉬는 현대 자본주의의 세상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개인을 잃어버리고' 이름 없는 집단 속의 일원으로 말살될지 모른다는 공포. 전염병의 창궐에 2년째 전 세계가 시달리고 있는 우리에게겐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인 공포다. 강시가 도술에 기반을 두고 있고, 뱀파이어가 마법적인 존재인 것과 달리 좀비가 SF적 상상력에 쉽게 결합할 수 있는 것 또한 유리한 점이다. 쉽게 말해 유행을 타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것과 결합해 유행을 창조할 수 있는 만능형 요리도구인 셈이다.



K 좀비물은 이제 시작일 뿐

좀비는 분명 외래종이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활발한 변주가 일어나고 있다. 좀비물과 사극의 결합으로 열풍을 일으킨 <킹덤>, 고등학교를 무대로 대한민국의 입시환경이 좀비소굴 못지않다는 점을 일깨운 <지금 우리 학교는>이 끝이 아니다.

가장 활발하게 진화가 일어나고 있는 터전은 아무래도 웹툰일 것이다. 좀비가 되어버린 딸을 가진 아버지가 주인공인 <좀비딸>, 치료제가 발명된 이후 좀비였던 시절을 기억하는 이들의 서사 <좀비를 위한 나라는 없다>, 치열한 경쟁을 피해 좀비가 장악한 소품물에 숨어사는 이들의 드라마인 <위아 더 좀비>에 이르면 지극히 한국적인 캐릭터들이 신선한 좀비물의 지평을 열고 있다. 부끄럽지만 필자의 작품 중 <태릉좀비촌>은 스포츠물에 좀비를 결합한 것이고, <하이트블러드>는 우주 방주를 배경으로 스페이스 오페라에 좀비를 끼얹은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 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2년 동안 우리를 진절머리나게 했던 팬데믹이 종식되고 난 후 좀비물의 유행에도 커다란 변화가 볼 것이 틀림없다. 우리는 모두가 학습했다. 아포칼립스라는 것, 세상의 종말이라는 것이 어쩌면 한순간에 운석처럼 찾아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것을. 어쩌면 우리의 이웃인 척 스며들어 밑바닥에서부터 일상을 붕괴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고 있을 좀비물이 궁금하다.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작가들의 데뷔작일 수도 있다. 그것이 팬데믹을 극복한 시점에서 또 얼마만큼 진화한 '좀비물'로 우리를 즐겁게 해줄지 창작자이자 장르의 오랜 팬으로서 매일이 두근대는 요즘이다. ◀



일상과 예술이 공존하는 — 오스트리아, 빈



일상과 예술 사이 오스트리아 빈 산책

나는 10년 차 여행작가 겸 여행 인플루언서다. 그동안 눈길을 사로잡는 화려하고 멋진 것 자랑할 만한 것을 찾아 여행을 떠났다. 독자에게 '좋아요'를 많이 받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다. 강렬한 것을 마주할

땐 감탄이 절로 났지만 막상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공허해지곤 했다. 보여 주기식 여행은 오래가지 못했고, 어느새 매너리즘에 빠졌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여행을 갔을 때였다. 예술여행을 하고 싶어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의 공연 일정을 찾아보고, 유명한 예술 장소를 잔뜩 검색해 갔지만 정작 내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소소한 거리풍경과 카페에 들었던 라이브 피아노 연주였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커피향이 코끝에 스치는 골목길을 걸을 때 비로소 여행의 의미를 찾게 됐다. 내 영혼이 잠시나마 위로를 받고 쉬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나를 위한 여행이구나. 지금 여기. 내가 지금 걷고 있는 모든 길이 여행자 예술이었다.

오스트리아의 수도를 독일어로는 빈(Wein). 영어로는 비엔나(Vienna)라고 한다. 중부 유럽 도나우 강 상류에 자리 잡고 있는 비엔나는 유럽에서 가장 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합스부르크 왕가 (1273~1918)의 통치 기간 음악, 미술, 건축 등 예술을 꽃피웠다. 비엔나의 거리에는 골목마다 예술의 향기가 느껴진다.



콜마르크트 거리, 그라벤 거리

빈 산책의 하이라이트.
콜마르크트 거리, 그라벤 거리, 케른트너 거리
 Kohlmarkt Straße, Graben Straße, Kärntner Straße

성 슈테판 대성당으로 가는 길,
 콜마르크트 거리, 그라벤 거리,
 케른트너 거리가 차례로 이어진
 다. 비엔나 주요 관광지와 쇼핑

가가 밀집해 있어 늘 붐비는 거리다. 보행자 전용도로인 콜마르크트 거리는 석탄시장을 뜻하는 Coal Market에서 유래했다. 14세기 석탄시장이 있던 곳이 지금은 관광객이 모여드는 유명한 거리가 되었다. 거리를 구경하며 걷다보면 어느새 그라벤 거리로 이어진다. 그라벤 거리에는 성 베드로 성당, 삼위일체 탑(페스트 탑) 주변으로 노천 레스토랑이 즐비하다. 국립오페라극장부터 성 슈테판 성당까지 이어지는 케른트너 거리에도 기념품 가게와 카페, 레스토랑 등 구경거리가 많다. 몇 백년이 훌쩍 넘은 건물 사이를 걷다 보면 마치 중세시대로 시간 여행을 떠났을 듯 하다.

비엔나 랜드마크
성 슈테판 대성당
 St. Stephansdom

오스트리아 빈의 심장이라 불리는
 성 슈테판 대성당을 찾았다. 길이
 107m, 높이 39m에 이르는 웅장한
 규모에 입이 떡 벌어졌다. 기독

교 최초의 순교자 성 슈테판을 기념해 지은 비엔나 최대 규모 성
 당이다.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부분을 복구해 지금은 옛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성 슈테판 대성당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음악가
 의 흔적이 있다. 모차르트가 이곳에서 결혼식과 장례식을 치렀
 고, 하이든은 이 성당의 소년합창 단원으로 활동했다고 하니 더
 욱 특별하게 느껴졌다. 340여 개의 계단을 올라 성당 남탑 꼭대
 기에 갈까 하다가 발길을 돌렸다. 성당 맞은편에 있는 도앤코 호
 텔 ONYX Bar에 들러 커피 한 잔을 시키니 성 슈테판 성당을 포
 함한 비엔나 시내 뷰가 보너스로 딸려왔다. 성당 꼭대기에 올라
 갔어도 좋았겠지만 편안한 소파에 앉아 커피 한 잔 즐기며 창밖
 으로 바라보는 뷰가 더 마음에 들었다.



1

- 1 성 슈테판 대성당
- 2 프라터
- 3 카페 첸트랄



2

영화
<비포선라이즈>
촬영지
놀이공원 프라터
 Prater

하루는 영화 <비포 선라이즈> 촬영
 지였던 프라터에 다녀왔다. 영화 속
 주인공 셀린과 제시는 기차에서 우
 연히 만나 비엔나를 함께 여행한다.

영화 내용 중에서도 대관람차 키스
 신은 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다. 그래서 나도 그곳
 에 가고 싶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놀이공원이 바로 비엔나 프라터다. 1766
 년 황제 요제프 2세가 이 지역을 레저센터로 비엔나에 기부하기
 전까지 황실 사냥터로 쓰였다. 프라터는 뉴욕 센트럴 파크 2배
 에 이르는 녹지가 조성되어 있어 발걸음 닿는 곳마다 눈이 시리
 도록 푸르다. '프라터'라는 이름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라틴
 어로 초원을 뜻하는 'Pratum'에서 온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진
 다. 대관람차는 1897년 프란츠 요제프 황제 즉위 50주년을 기념
 해 만들었다. 느릿한 속도로 꼭대기에 다다르니 비엔나 시내 풍
 경이 한눈에 펼쳐진다. 초록초록한 숲 너머로 펼쳐지는 비엔나
 의 풍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았다.



비엔나 커피를 찾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만으
로도 행복해질 때가 있다. 비
엔나는 유럽에서도 미식의

도시로 손꼽힌다. 그중에서도 꼭 맛봐야 할 것이 커피다. 독일의 극작가 베르톨트 브레히트는 “비엔나는 카페에 둘러싸인 도시다”라고 했다. 그의 말처럼 비엔나에는 1,200여 개의 카페가 영업 중이다. 비엔나에는 커피를 테이크아웃 해가는 사람들보다 카페에 앉아 느긋하게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

빈 카페 중에서 1876년에 문을 연 카페 첸트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첸트랄 카페는 당시 작가, 화가, 배우, 심리학자 등 예술가들의 사랑방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오스트리아의 괴짜 시인 페터 알텐베르크의 동상이 반겨준다. 실제로 그는 내 집처럼 이 카페를 자주 드나들었고, 편지에 카페 주소를 쓸 정도로 자주 왔다고 한다. 클림트와 그의 연인 에밀리도 단골손님이었다. 예술가들은 이곳에서 작품을 쓰고, 교류했으며 비엔나의 화려한 문화 전성기를 꽃피웠다. 오랜 역사만큼이나 수많은 이야기를 간직한 카페.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카페 분위기는 낭만주의 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난 듯 우아하게 꾸며졌다. 고풍스런 조명과 가구, 나무틀에 끼워둔 종의 신문이 눈길을 인상적이었다. 각 잡고 앉아 숨죽여 봐야 하는 유명 오케스트라의 공연보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들었던 이름 모를 연주자의 피아노 연주가 더욱 기억에 남는다. ▶

Travel Tip 알아두면 쓸모 있는 비엔나 커피 상식



1. 한국에서 비엔나 커피로 알려진 커피는 아인슈페너(Einspanner)다. 블랙커피 위에 휘핑크림을 듬뿍 얹은 커피다. ‘한 마리 말이 끄는 마차’라는 뜻의 아인슈페너. 과거 마부들이 한손으로 말고삐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설탕과 생크림을 넣은 커피를 들고 마신데서 유래했다.
2. 비엔나 카페에는 커피에 우유를 넣고, 그 위에 우유거품을 올린 멜랑지(Melange), 커피에 럼주를 넣고 휘핑크림을 올린 피아커 (Fiaker) 등 다양한 커피 메뉴가 있다.
3. 커피를 시키면 커피와 물을 함께 준다. 입을 행구고, 커피 본연의 맛을 음미하라는 의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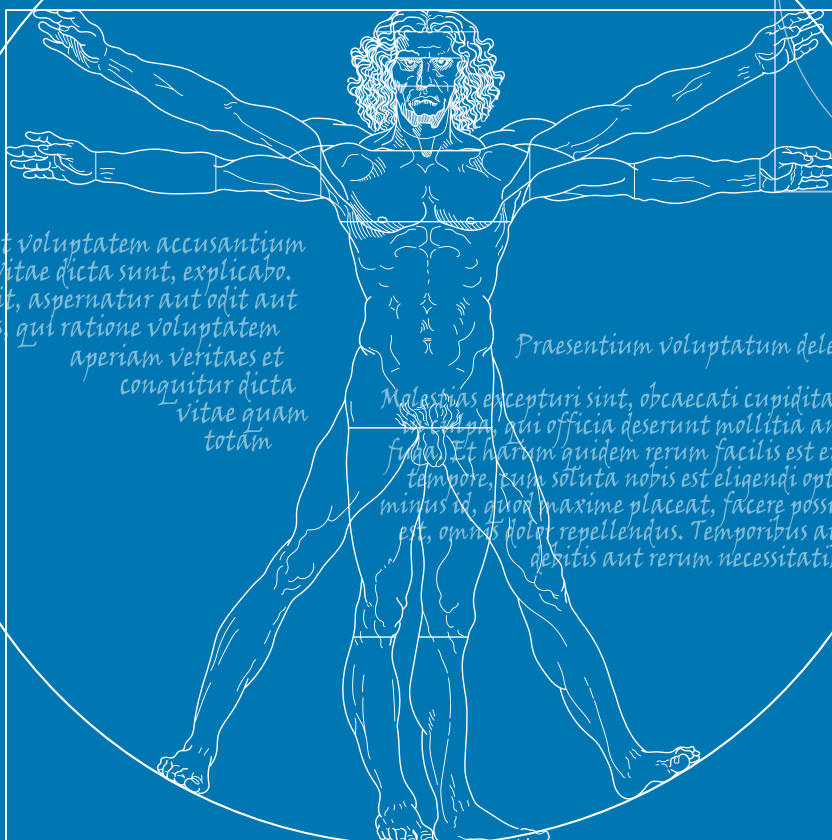
글·사진 — 박은하

여행작가. 학창 시절 방학 때면 전국을 다녔고 성인이 되어서는 해외로 나갔다. 세월이 흐를수록 세상 보는 눈도, 즐기는 법도 달라지니 여행은 익숙하면서 늘 새롭다. 여행신문과 여행잡지 ‘트래비’에서 여행 기사를 10여 년 했으며 현재 여행 콘텐츠 제작사인 ‘스토리 발전소’를 운영하며 외국 관광, 지자체, 관광공사 등과 함께 일하고 있다.

과학과 기술을 만난 예술세계 이야기

산업의 발달과정에 '혁명'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이유는 그것을 계기로 사회 전체가 엄청난 변화를 겪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 중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간을 모방한 테크놀로지의 창조물이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놀랍고도 두려운 일이 벌어졌다. 우리가 경험한 기억할 만한 예는 2017년 5월, 인간과 인공지능 사이에 열린 바둑경기에서 후자의 알파고(AlphaGO)가 완승했던 사건이었다. 과거에는 어땠을까.

latis, unde omnis iste natus error sit voluptatem accusantium
ritatis et quasi architecto beatae vitae dicta sunt, explicabo.
sam voluptatem, quia voluptas sit, aspernatur aut odit aut
ia consequuntur magni dolores eos, qui ratione voluptatem
aperiam veritatis et
consequitur dicta
vitae quam
totam



Praesentium voluptatum deleniti atque corrupti

Malasitias excepturi sint, obcaecati cupiditate non provident, similique sunt
in eum, qui officia deserunt mollitia animi, id est laborum et dolorum
fuga. Et harum quidem rerum facilis est et expedita distinctio. Nam libero
tempore, cum soluta nobis est eligendi optio, cumque nihil impedit, quo
minus id, quod maxime placeat, facere possimus, omnis voluptas assumenda
est, omnis dolor repellendus. Temporibus autem quibusdam et aut officiis
degitis aut rerum necessitatibus neque eveniet.

예술가의 발명품

미술뿐 아니라 기계공학에도 큰 업
적을 남긴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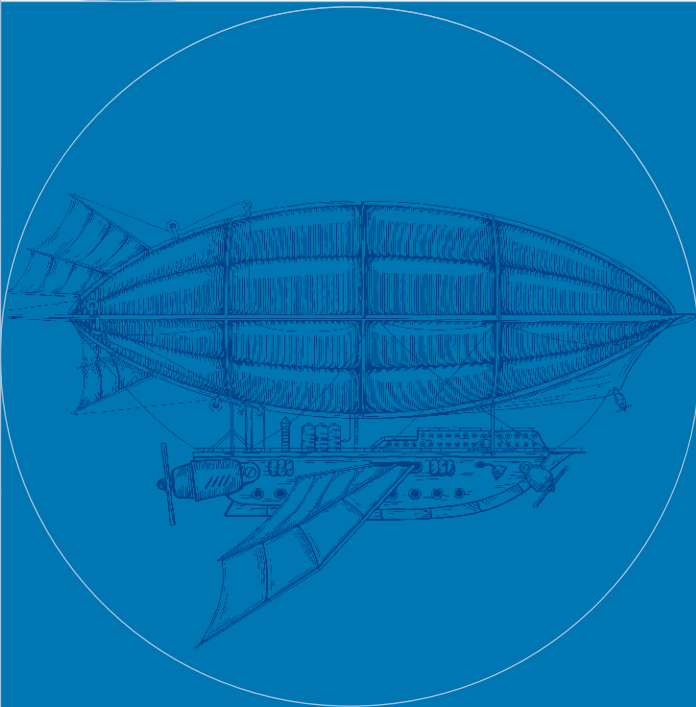
da Vinci)는 평소에 자신이 상상한 것들

을 그림과 설명을 곁들여 노트에 기록해두곤 했다. 37년간 작성
한 그의 노트는 다 모으면 100권 가량 되고 전부 3만 장 정도에
이르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다빈치 코덱스(Codex: 두루마리가
아닌 책 모양으로 된 고문서)다. 이 기록물은 미술적 상상력과
과학적 상상력이 만나고 갈라지는 지점을 그대로 알 수 있어서,
오늘날과 같은 융합지식의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다빈치는 죽기 전에 자신의 노트를 제자에게 맡겼고, 제자는
스승의 것이라 너무도 소중하게 잘 보관했다. 하지만 제자가 죽
고 난 뒤 세월이 흐르면서 후세 사람들이 관리를 잘하지 못하
여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1994년에 다빈치의 노트 중 일부
가 크리스티 경매에 올라왔다. 아이디어를 무엇보다 중요시하
는 세계적인 부자, 빌 게이츠가 3,100만 달러(약 340억 원)에
그것을 사들이면서, 누구나 쉽게 다빈치의 노트를 보고 참고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보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빈치의 발명품 중에서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것은 <기계사자>였다. 기계사자는 다빈치가 프랑스의 왕 루이
11세에게 꽃을 바칠 때 처음 선보였는데, 사자가 몇 발 앞으로
나가다가 뒷발로 우뚝 서면 가슴이 열리면서 심장에 있던 백합
꽃이 아래로 와르르 쏟아졌다. 이 경이로운 장면에 관중은 박
수와 환호를 멈출 수가 없었다고 한다. 기계사자는 자동제어장
치를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최초의 기계였다.
그렇지만 다빈치가 남긴 상세한 기록과 스케치가 사라져버려
서 기계 사자가 어떤 동력으로 작동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하니 아쉬운 일이다.

2012년에 기계사자를 만든 엘뜨레(L3)는 다빈치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름이다. 1998년 이래로 엘뜨레는 전 세계에
흩어진 다빈치의 노트들을 모으고 연구해 왔다. 과거에는 불
가능했던 다빈치의 아이디어를 현대의 과학 기술력을 이용하
여 하나씩 모형으로 만들어 보면서 못다한 다빈치의 꿈을 실
현하고 있다.



엘뜨레(Leonardo3), <기계 사자>, 2012,
사진: 이주은

시계에서 오토마톤으로

다반치가 살아있는 동물의 움직임을 모방하여 기계사자를 선보인 지 백 년 정도 더 시간이 흐른 후에 살아있는 인간을 모방한 자동 기계인간, 오토마톤(Automaton)이 발명되었다. 오토마톤은 단순히 기계장치를 지닌 인간의 형태가 아니라, 인간의 행위, 이를테면 글을 쓰고 악기를 연주하고 곡예를 하는 행위를 모방하도록 만든 기계이다.

기계가 능숙하게 인간의 행위를 대신하면 할수록 인간은 편해지는 동시에 직업을 잃게 된다. 로봇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첫 사례는 아마 교회에서 종을 치는 사람일 것이다. 과종시계 속의 <종치는 자동인형>이 오토마톤의 공식 기원인데, 아마 이 인형 때문에 교회 종탑에서 숙식을 해결하던 종치기가 할 일이 없어서 쫓겨났을 것이다. 종치는 자동인형은 과종시계에서 독립하여, 시계기능공에 의해 오토마톤으로 제작되고, 17세기부터는 수학자와 천문학자 그리고 과학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점차 진화된 오토마톤이 등장하게 된다.

기계인간을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닌 현실의 것으로 실현시킨 기술적 배경은 시계장치였다. 17세기 서구에서 시계는 최첨단 기



<종치는 자동인형>, 1619, Benfeld, Place de la Mairie, Hôtel de Ville, Bas-Rhin, Alsace. 출처: 위키미디어

계로서 현대의 컴퓨터와 비교될 정도로 자립성을 갖추었다. 사람은 시계의 자동성과 정밀성에 의존하여 계획을 짜 맞추었고, 이는 인간이 처음으로 기계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시

사한다. 이 무렵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R. Descartes)는 ‘동물기계론’을 제창하면서 본능에 따라 먹고 배설하고 잠자는 식으로 매일 반복하는 동물의 움직임을 이미 입력된 대로 자동으로 작동하는 태엽 시계장치에 비교한 바 있다. 사실 시계공학자가 오토마톤을 내놓기 훨씬 이전부터 미술가는 인체를 모방한 조각상을 만들어왔다. 신을 닮은 인간의 형상을 르네상스 시대에는 미술품 속에 담아냈다면, 18세기에는 과학적 진보의 힘을 입어 인간을 닮은 기계의 형상을 오토마톤으로 구현해낸 것이다. 미술사학자 잭 번햄(Jack Burnham)은 『현대 조각 너머에서』라는 저서에서 조각품이 만들어진 이래로 조각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가 되어 온 것은 생명의 창조였으리라 지적한다.

자신이 만든 조각상을 어찌나 간절히 사랑했는지 어느 날 그 작품에 정말로 영혼이 깃들어 여인으로 변신했다는 그리스의 조각가 피그말리온의 이야기처럼 때로 인체조각상은 단순한 미술품에서 멈추지 않는다. 마치 창조주가 자신을 닮은 아담을 흙으로 빚어 숨을 불어넣듯이 조각가 피그말리온도 신의 지위를 모방하고픈 충동에서 피조물을 탄생시킨 것이다. 오토마톤에게도 피그말리온과 같은 창조주 모방충동이 깃들어 있다고 봐야 한다. 생명창조를 꿈꾸는 누군가의 열망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기계인간의 공연

인간과 기계에 대한 철학적 사고가 무르익었던 18세기에 가장 놀라운 수준의 오토마톤 제작자, 피에르 자케-드로(Pierre Jaquet-Droz)가 등장하게 된다. 스위스 태생의 시계공이었던 자케-드로는 스페인 국왕에게 시계를 판매하여 받은 엄청난 거금 덕택에, 아들과 함께 오직 오토마톤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었다. 시계의 작동 원리를 응용하여 1768년에 착수한 <작가>, <음악가>, 그리고 <화가>의 세 오토마톤은 6년 후인 1774년에 모두 완성되었다. 70cm 크기의 이 기계인간들은 현재 네샤텔(Neuchâtel)에 있는 미술역사박물관에 모여져 있으며, 놀랍고도 섬뜩하게 여전히 작동된다.

오토마톤도 처음 선보였을 때 사람들에게 알파고의 등장 못지 않은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것은 단순히 장난감이나 수공예품 수준의 기계가 아니라 당대의 첨단 과학기술과 의학 및 생리학,



피에르 자케-드로, <음악가>, 1774, Musée d'Art et d'Histoire of Neuchâtel, Switzerland. 출처: 위키피디아

그리고 인문예술 분야의 연구가 총체적으로 결합된 기계인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8세기 최첨단 기술의 성과이던 오토마톤은 기술공학적으로 더 진화되지 않은 채 다수 제작, 판매되면서 점차 그것에서 대단한 발명품이라는 휘광이 빠져나가게 되었다. 19세기의 사람들은 그저 고급스러운 천으로 정교하게 재단한 옷을 입힌 꼭 소장하고 싶은 태엽인형으로 오토마톤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렇듯 오토마톤에 연극적인 기능이 강화되어 꼭두각시처럼 변하더니, 안타깝게도 기계인간으로서의 면모는 퇴화하고 말았다.

키네틱 아트

20세기는 기계문화를 토대로 번성했다. 기계로 인해 달라질 미래 세계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 시기 예술인들의 입장은 둘로 나뉘었다. 기계가 노예나 하층민 대신 일을 해주기 때문에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올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반대로 기계가 인간 고유의 존엄성을 침범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이들도 있었다. 스위스 출신의 조각가인 장 텅겔리(Jean Tinguely)는 두 입장의 경계에 있었다. 그는 기계문화를 조롱하는 한편,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예술품의 소재로 활용했다.

텅겔리는 산업사회에서 쓸모 없어져서 버려진 기계들을 눈여겨보다가 키네틱 아트(Kinetic Art, 바람이나 전기모터 등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도록 만든 예술품)로 승화시켰다. 고장 난 기계들을 주워 모아 부품들을 뜯고 새로 붙여 별다른 용도도 없이 그냥 엉뚱하게 작동하는 장난감 같은 기계를 만듦으로써, 기계란 늘 실용적이며 생산적이라는 믿음에 위배되는, 얼마든지 흥미진진한 예술품이 될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한 것이다. 스위스 바젤에 있는 텅겔리 미술관에는 빙빙 돌아가며 물장난을 하듯 사방팔방으로 물을 뿜어 대는 검은 철제 기계들을 볼 수 있는데, 텅겔리가 만든 <키네틱 분수조각>이다. 21세기에도 여전히 우리는 기계공학과 과학기술, 그리고 예술적 재치가 융합된 각종 결과물들을 약간은 두려워하면서도 신기해하고 즐기며 산다.■



장 텅겔리, <키네틱 분수조각>, 1977, 텅겔리 미술관, 바젤. 출처: 위키피디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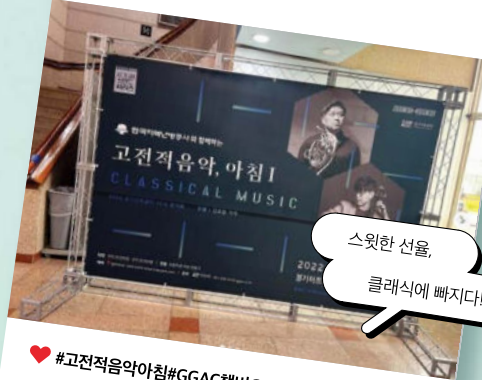
글 — 이주은

미술사학자-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인문학자의 시선으로 그림을 보면서 동시에 인간적인 감수성으로 그림을 사랑한다. 또, 그림을 둘러싼 문화에도 관심이 많다.

BIMONTHLY
FEED#독자참여
#SNS 공연리뷰

길고 길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다시 우리 곁에 찾아왔습니다.
소중한 일상의 회복에 감사하며
경기아트센터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공연들과 함께
활기를 되찾아 보는 건 어떠세요?
혼자, 친구, 가족 등 어떤 사람과 함께 하더라도
소중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모처럼 마음 편히 봄나들이에 나선 관객분들의
하루를 되새겨봅니다.

librari_hana



스윗한 선율,
클래식에 빠지다!

♥ #고전적음악아침#GGAC챔버오케스트라#2022가나공연

봄날 아침을 장조의 곡들로 산뜻하고
신나게 꾸미고 싶었다는 김성진 지휘자의 말처럼
모차르트의 교향곡이 내 기분을 들뜨게 했다.
경기챔버오케스트라 악장과 각 단원들이
눈으로 주고받는 싸인이 너무 다정해서
이런 분위기라면 좋은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었다.
공연 끝나고 아이스커피와 쿠키도 넘 스윗!! ㅋㅋㅋ

yeongbros_



오늘 하루도
추억이 됩니다!

♥ #아들들맘#엄마표홍스쿨#육아#일상#연극#바다쓰기

요즘 어린이들의 일상 이야기로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어 여덟 살 첫째에게도
끝까지 집중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
농담으로 가기 전에 받아쓰기 시험 본다고 했더니
진짜 받아쓰기까지 할 줄은 ㅎㅎ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너희들~

yunyoon...story



영원한
별밤지기~
감동의 콘서트

♥ #이문세콘서트#깊은밤을날아서#별이빛나는밤에

발라드로만 무대를 꾸몄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성에 젖을 각오로 콘서트를 봤어요.
그런데 신나는 곡이 더 많았던!!
희로애락을 느꼈던 공연이었습니다
미친 듯이 웃었고, 감정에 북받치며
눈물도 흘렸던 잊지 못할 콘서트였어요.

GGAC GIFT — —

여러분의 소중한 리뷰를 <예술과만남>과 공유해주세요! **이야기가 담긴 사진**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경기아트센터 #문화예술 #공연 등 해시태그 달면 참여 완료!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k_music_acade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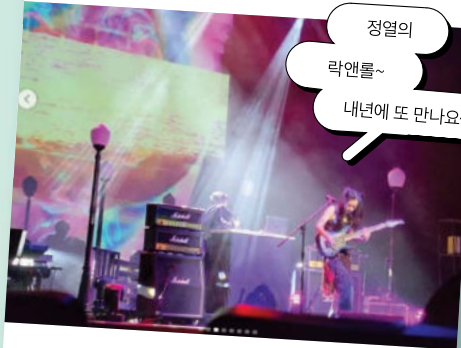
열정적인 지휘,
완전 감동이에요~

♥ #경기필하모닉#마스터피스 시리즈#드뷔시&레스피기

언제나 그랬지만 특히나 이번 연주는 더욱 그랬다.
 마시모 자네티의 온몸을 불사르듯 하는 열정적인 지휘에
 연주회를 보는 내내 폭 빠져 볼 수밖에 없었다.
 완전 감동~♡♡



ijayeong9901



정열의
락앤롤~
내년에 또 만나요~

♥ #골든핑거기타페스티벌#경기아트센터#기타스피릿

말도 안 되게 저렴한 티켓으로
 말도 안 되게 좋은 공연을 즐기고 옴
 해마다 한다니 내년에는 꼭!
 누군가와 함께 해야겠다고 다짐!



ttoktti_kim



어린이 연극 축제!
김독띠가 뒀다~

♥ #경기도극단 @GGAC_drama#어린이연극축제

관객참여형 공연. 무대 넓게 보려고
 중간자리 앉았더니 시야가 확 트였음.
 대놓고 막 웃기다기보다 방심한 순간
 허를 찌르는 유머 감각이 세련되고 좋았다.
 마지막 반전에는 나도 모르게 감동 받아서 울컥함.
 김독띠보다 내가 더 만족한 공연.



bbona0117



문화 데이트,
엄마 사랑해~

♥ #엄마랑#둘이서#경기아트센터#친정엄마와2박3일

어버이날이어서인지 극장 안이 가득 찼다.
 이제 나도 엄마여서 엄마 입장에서도 느껴지고
 딸 입장에서 느껴지고 자꾸 눈물이 나서는...
 강부자 배우님의 열연으로 나도 엄마도 계속 울었다.ㅠㅠ
 가슴이 좀 먹먹해지는 연극이었다.
 나중에 후회 없이 좋은 엄마,
 좋은 딸이 되도록 많이 노력해야겠다.

판소리공장 바닥소리

더할 나위 없이

7.30^토 16:00

ZZAM3

새로운 음악세계를 여는 **짬 콘서트 3**



Jtbc 풍류대장 TOP 3

AUX와 놀아보세

8.27^토 16:0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티켓 전석 3만원 (할인 30% ~ 50%) | 문의 경기국악원 031-289-6420 | 만7세이상 관람가



GGAC NOW

2022년 경기도무용단 프로젝트 단원
이현지·임원근·안시현·임영주
뜨겁고 행복하게 춤과 인생을 배우는 중입니다

문화나눔 · 심터

경기아트센터 2022 감성맞춤 인문학 아카데미

GGAC NEWS

경기아트센터 뉴스

캘린더

2022년 6~7월 주요 공연 일정

예술과만남 활용백서

예술과만남 슬기로운 탐구생활



Daily life

GGAC's Pick

Art





뜨겁고 행복하게 춤과 인생을 배우는 중입니다

2022년 경기도무용단
프로젝트 단원
이현지·임원근·안시현·임영주

글 이경희
사진 이성원

지난해 12월, 경기도무용단은
2022년 한 해 동안 함께 무대에 오
를 프로젝트 단원을 공개선발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경기도무용단
1기 프로젝트 단원으로 선발된 이
들이 보낸 시간은 어땠을까? 선망
하던 경기도무용단의 일원이 된 유
쾌발랄 MZ세대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우연처럼 혹은 운명처럼

임원근 ● 연습실에서 늘 얼굴을 보는 사이지만 이렇게 인터뷰를 위해 모이니 또 새로운 느낌이에요. 저는 작년 11월에 경기도 예술단 프로젝트 단원 공개모집 공고가 뜬 걸 보고 창작이나 전통,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는 작품을 하는 경기도무용단에서 다양한 걸 배울 수 있다고 생각에 응모를 했습니다. 학교 졸업과 동시에 프로젝트 단원으로 합류를 한 셈인데 일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안정적인 시간을 보내게 됐다는 사실에 굉장히 기뻐요. 일단 무대에 서는 게 1년은 보장이 되는 거니까요(웃음). 응시자도 합격자도 제가 유일한 남자였습시다.

임영주 ● 저는 올해 대학을 졸업하고 프로젝트 단원으로 들어왔어요. 졸업반이 되면서 무용단 입단 준비를 위해 이런저런 모집공고들을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 제일 먼저 뜬 게 경기도무용단 프로젝트 단원 공고였습시다. 저는 교수님께서 경기도무용단에 좋은 단장님이 계시다면서 배우는 게 많을 거라고 적극 추천을 해주셔서 용기를 낸 경우였어요.



안시현 ● 저도 작년에 졸업을 하고 무용단 입단 준비를 하다가 모집공고를 봤어요. 이전부터 경기도무용단은 잘 알고 있었는데 특히 <률(律)>이라는 공연을 보면서 나도 저런 무대에 한 번 서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죠. 바로 그 무용단의 일원이 되서 무척이나 기뻐했습니다.

이현지 ● 저는 작년에 학교를 졸업하고 지방의 한 무용단에서 인턴 단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경기도무용단에 들어오게 됐습시다. 지방에 계속 있으면 안주하게 될 것 같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던 차에 아는 선배님께서도 이제 지방이 아닌, 큰물에서 한번 놀아보면 어떻겠냐고 추천을 해주셨어요. 덕분에 이렇게 지금 경기도무용단의 일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시다.

함께 만든 첫 공연 이야기

이현지 ● 저희 모두에게 <순수>는 경기도무용단의 프로젝트 단원으로서 처음 무대에 올랐던 작품이에요. 단원으로 함께 연습하면서 느낀 건 확실히 도립무용단으로서 스케일 자체가 남다르다는 것이었어요. <순수>를 준비할 때 외부에서 안무 선생님이 오셨는데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협업, 상호보완을 해가면서 작품을 만들어 갔던 게 저는 무척 인상적이었습시다. 또 <순수>에서 '강강술래'를 출 때 우연찮게 제가 맨 앞에서 무용수들을 이끌고 갈 기회가 있었어요.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시는데 몸은 안 따라가고.. 제가 제대로 못하면 뒤따르는 동기나 선배님들이 저를 힘들게 따라와야 하는 그런 동작들이었기 때문에 미안하기도 하고 부담도 컸어요. 다행히 친구들도 많이 도와주고 선배님들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시다. 고생했던 만큼 성취감도 컸어요.

임원근 ● 저는 단체생활, 회사생활이 이번이 처음이었 거든요. 새롭게 느낀 건 기존에 학교에서나 프리랜서로 공연을 뛰면서 느꼈던 감정과 회사 소속 단원으로 공연을 할 때 느끼는 감정이 좀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명감의 무게가 더 묵직하다고나 할까요. 무대에서 내가 해야 할 몫과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잘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시다.



안시현 ● 혼자 출 때는 사실 내가 돋보여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웃음). 그런데 무리 안에서 함께 춤을 출 때는 스며드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해요. 매 순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우러질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꽤 까다로웠습시다. 선배들은 이럴 때 이렇게 호흡을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동선을 만들어 가면 나는 이런 식으로 따라가야겠구나 그런 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어요.

임영주 ●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오래 전통무용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클래식 음악으로 공연을 한 건 <순수>가 처음이었어요. 처음 연습을 할 때만 해도 고개를 가

우뚱하게 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선배님들이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옆에서 정말 많이 도와 주셨고 나중에는 경계를 허무는 콜라보 공연에 대한 매력을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춤과 서양음악의 어울림이라는 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함께해서 행복한 우리 동기들

안시현 ● 프로젝트 단원 생활을 시작한 지 이제 5개월 남짓 지났지만 동기의 소중함을 정말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일단 연습부터 무대에 오르기까지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많고 동기들끼리 모여있는 단톡방도 늘 시끌벅적합니다. 오늘날 해도 인터뷰 때 옷을 맞춰 입어야 하지 않을까 서로 의논도 했고요(웃음). 저는 외부 활동을 별로 안 했기 때문에 처음 단원이 됐을 때만 해도 아는 사람이 없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동기들이 잘 챙겨주고 또 대화하다가 겹치는 지인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말도 시켜주고 해서 정말 고마웠어요.

임영주 ● 저는 들어왔을 때 아는 동기가 한 사람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전에는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들어와서 같이 부대끼며 연습하고 호흡을 맞추다 보니까 엄청나게 친해진 거예요. 소중

한 인연을 새롭게 만난 느낌? 경기도무용단에서 다시 만나지 않았다면 그 친구에 대해서 알 일도 없었을 테고 그냥 평범한 지인으로 스쳐 갔을 텐데 정말 큰 선물을 받았죠.

임원근 ● 저는 성격이 좀 내성적인 편이라 사람들과 친해지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타입이에요. 다행히 알던 친구가 동기가 되면서 많이 의지가 됐고 다른 동기들도 성격이 좋아서 잘 어울리고 있어요. 또 청일점이라 눈치껏 힘쓰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생수통을 간다든가, 물건을 옮긴다든가 하는 거죠. (웃음).

이현지 · 임원근 · 안시현 · 임영주 ● 현재 저희는 <하랑>이라는 작품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순수> 때도 정말 연습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시간과 정성을 들여 준비하고 있어요. 벌써 5월이다 보니 1년이라는 시간이 금세 가겠구나 싶는데 <순수>를 준비하면서 많은 걸 배웠고, 또 앞으로로도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무용단에서의 경험과 관계 맺기, 자기 성찰 등을 통해 저희들의 현재와 앞날을 고민하면서 더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보러와주세요. ◀



나의 한마디 ~~~~~▶▶

안시현

경기도무용단은 내 인생의 변곡점이다!
제 인생의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현지

경기도무용단은 내게 마지막이다!
제가 경기도무용단의 프로젝트 단원으로 춤을 출 수 있는 건 올해가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다음에는 정식으로,
즉 다른 입지로 돌아오고 싶습니다.

임영주

경기도무용단은 내게 첫걸음이다!
경기도무용단은 제가 사회로 나온 첫걸음이었고 앞으로 발전하고 전진할 출발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원근

경기도무용단은 내게 추억이다!
아직 경기도무용단의 프로젝트 단원 생활이 끝난 건 아니지만 공연했던 <순수>도 그렇고 전부 좋은 기억밖에 안 남을 것 같아요.
먼 훗날 오늘을 돌아봤을 때
너무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경기아트센터 2022 감성맞춤 인문학 아카데미

경기아트센터는

'포스트 코로나' 일상 회복 움직임에 발맞추어
그간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되었던 문화예술
강좌를 약 2년 만에 대면 형태로 재개한다.
연간 분기별로 운영될 올해 강좌는
기존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하여
인문·예술 분야의 다양한 명사와 함께하는
<감성맞춤 인문학 아카데미>로
진행할 예정이다.

2022년 감성맞춤 인문학 아카데미 2분기 강의 목록

미술강좌 시리즈	6/13(월)	김홍기	미술로 읽는 건축사, 건축으로 읽는 미술사
	6/20(월)	최경원	형태, 아이디어, 철학으로 읽는 디자인
인문강좌 시리즈	6/8(수)	정여울	화가 헤르만 헤세, 치유의 그림들
	6/15(수)	김태형	가짜 행복 권하는 사회
	6/22(수)	권오숙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에서 삶을 배우다
음악강좌 시리즈	6/29(수)	강유정	영화 읽기의 즐거움
	6/3(금)	임진모	대중음악, 소통과 혁신의 가치
	6/10(금)	황장원	개성과 감성의 시대, 낭만파 음악의 거인들
	6/17(금)	황장원	낭만파 음악의 만개, 교향곡과 교향시
	6/24(금)	황덕호	재즈, 음악적인 너무도 음악적인

감성을 채우는 인문학 강의 시리즈

코로나19로 인해 멈춰있었던 경기아트센터의 대민 문화예술 관련 사업을 다시 시작된다. 2022년 인문학 강좌는 특히 <감성맞춤 인문학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 명에 걸맞게 다양한 주제의 인문학 강좌가 준비되어있다. 아카데미는 분야별로 '미술강좌 시리즈', '인문강좌 시리즈', '음악강좌 시리즈'로 나뉘며, 수강생들은 클래식, 미술, 심리학 등을 주제로 하는 19개 강좌 중 원하는 강좌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임진모 대중음악 평론가, 황장원 클래식 칼럼니스트, 정여울 작가, 김태형 심리학자, 최경원 디자이너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며, 친절하면서도 전문성을 갖춘 인문학 강의를 펼

친다. 한편, 경기아트센터는 문화예술 강좌 프로그램 개편과 더불어 안전하고 쾌적한 수강 환경조성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기존 대소극장 지하 공간에서 진행해오던 강좌는 올해부터 지상 2층에 위치한 컨벤션홀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모든 수강생들은 경기아트센터 내부에 위치한 카페G를 1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수강생들은 보다 넓고 편안한 공간에서 문화예술 강좌와 휴식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감성맞춤 인문학 아카데미>는 온라인 및 전화로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다수의 강의를 수강할 경우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수강신청 및 할인혜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아트센터 홈페이지(www.gg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Mini Interview

다시 시작하는 감성 회복의 시간

이번 인문학 아카데미를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은 타이틀이 '감성맞춤'인 만큼 도민들이 될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준비한 것입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미술, 인문학 등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강사진들을 모셔 감상의 폭을 넓히고, 여전한 진입 장벽이 높다는 이야기를 듣는 공연장에 더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찾아오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 머물렀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면서 생각도 멈추고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기회도 거의 갖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밖으로 나와 다양한 시간을 통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면 다시금 생각의 폭도 넓어지고 감성도 회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감성맞춤 인문학 아카데미>를 통해 생각의 힘을 다시 기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향후 활발히 활동하는 북유튜버를 초대하거나 중·고생들을 위한 강좌도 개설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경기아트센터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매일 더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문화나눔팀
김주리 주임

경기아트센터의
활동과 반가운 소식,
그리고 경기도예술단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GGAC NEWS

Gyeonggi Arts Center Magazine
www.ggac.or.kr

06+07
2022 Vol. 156

경기아트센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객석 운영 방침 변경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경기아트센터는 이에 발맞추어 더 많은 관객을 맞이하고 있다. 경기아트센터는 하반기 기획공연의 경우 순차적으로 객석 거리두기를 해제할 예정이며, 공동주최 및 대관 공연의 경우 현재 해당 공연 단체 및 기획사와의 협의를 통해 객석 오픈 비율 및 거리두기 시행 여부를 결정하여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경기아트센터에서 개최된 <2022 이문세 콘서트>, <조항조 & 진성 앙상블 콘서트> 등 주요 콘서트에서 객석을 100% 오픈하여 그간 아티스트의 콘서트를 고대하던 팬들과 관객들로 객석이 가득 찬 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6월 공연 예정인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7월 공연 예정인 매직쇼 <최현우 THE BRAIN> 또한 객석 전체를 오픈하여 더욱 많은 관객들과 함께할 예정이다.



“헌혈로 사랑을 나눴어요” 경기아트센터 광장에서 임직원 헌혈 캠페인 개최

경기아트센터는 지난 5월 13일, 경기아트센터 광장에서 임직원 대상 '깍(GGAC)! 사랑의 나눔데이' 헌혈 행사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혈액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기여하며 생명존중과 나눔의 실천을 확산하는 의미에서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팔을 건넜다. 본 행사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와 함께하는 '경기도 공공기관 헌혈릴레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공공 부문에서 솔선수범하여 헌혈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자 시작되었다. 그간 경기복지재단 등 7개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5월 경기아트센터와 경기도자원봉사센터를 거쳐 6월 초까지 이어진다. 헌혈릴레이에 참여한 한 직원은 “혈액이 부족해서 수술을 하지 못하는 등 안타까운 상황들을 기사로 많이 접했다. 가장 필요한 곳에 작게나마 도움이 손길을 보내고 싶어 동참하게 되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헌혈운동 또한 활발해져 더 많은 이들이 생명 나눔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기아트센터 관계자는 헌혈릴레이 캠페인을 시작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소임을 다하며 ‘선한 영향력’을 확산해 나가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교실에서 만나는 전통 예술, <2022 찾아가는 국악소풍>

경기아트센터가 전통 예술 교육프로그램 '찾아가는 국악소풍'을 연간 진행한다. 찾아가는 국악소풍은 도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악교육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은 본 프로그램을 통해 국악 연주와 전통 연희 등을 직접 체험하면서 우리 전통 예술을 쉽게 배울 수 있다. 경기아트센터는 2022년 한 해 동안 프로그램을 신청한 도내 학교 곳곳을 방문하여 맞춤형 전통 예술 교육을 펼칠 예정이다. '찾아가는 국악소풍'은 수요자 중심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년별 음악 교육과 정과 연계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각 프로그램에서는 '실내악', '전통연희', '판소리' 등 다양한 전통 예술의 갈래를 소개한다. 또한, 다년간 국악교육 및 공연의 경력을 보유한 도내 예술인 및 예술단체가 참여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이면서도 흥미로운 예술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청소년들은 본 프로그램을 통해 실내악, 민요, 판소리 등 국악의 기본 장르에 대해 배우고, 예술인들과 함께 전통 가락을 감상하고, 함께 불러보는 시간을 가진다. 가야금, 해금, 피리 등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국악기 연주를 감상하고, 악기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신청한 프로그램에 따라 '사물놀이', '북청사자놀이', '버나놀이' 등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전통연희 체험도 가능하다.



2년 만에 재개된 문화예술 강좌 프로그램, <2022 감성맞춤 인문학 아카데미> 연간 진행

경기아트센터는 그간 중단되었던 문화예술 강좌를 약 2년 만에 대면 형태로 운영한다. 강좌는 연간 분기별로 운영하며, 2022년도 강좌는 기존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하여 인문·예술 분야의 다양한 명사와 함께하는 <감성맞춤 인문학 아카데미>로 진행할 예정이다. <감성맞춤 인문학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명에 걸맞게 클래식·미술·심리학 등 다양한 주제의 인문학 강좌가 준비되어 있다. 한편, 경기아트센터는 문화예술 강좌 프로그램 개편과 더불어 안전하고 쾌적한 수강 환경조성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기존 대·소극장 지하 공간에서 진행해오던 강좌는 올해부터 지상 2층에 위치한 컨벤션홀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모든 수강생들은 경기아트센터 내부에 위치한 카페G를 1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수강생들은 보다 넓고 편안한 공간에서 문화예술 강좌와 휴식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아트센터 관계자는 “<감성맞춤 인문학 아카데미>는 기존 경기아트센터 문화교실을 새롭게 개편한 프로그램”이라며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들이 인문학적 감수성을 키우고, 나아가 공연예술을 더욱 깊이 있게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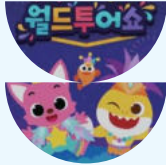


짬내서 국악과 놀자! 2022 '짬콘서트', 오는 7월 경기아트센터에서 공연

현대적인 감각으로 국악을 재해석하는 젊은 국악인들의 무대, <짬콘서트>가 2022년에도 관객들을 찾는다.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국악 콘서트를 콘셉트로,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젊은 국악 아티스트들의 무대로 구성된 공연이다.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짬콘서트>는 소리꾼 이희문, 고영열, 서도밴드, 추다혜차지스 등 우리 전통 음악을 더욱 현대적이고 세련되게 선보이고 있는 아티스트 및 국악그룹을 대중에게 소개해오며,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2022년 <짬콘서트>는 총 2회 공연 예정이며, 첫 번째 공연은 '더할 나위 없이'라는 타이틀로 오는 7월 30일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 7월 공연에서는 다섯 명의 젊은 소리꾼으로 구성된 '판소리공장 바닷소리'가 무대에 오른다. '판소리공장 바닷소리'는 현대인의 애환을 담은 가사와 세련된 국악선율이 어우러진 노래로 주목을 받아온 국악그룹이며, 2021년 KBS 국악대상 단체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관객들은 젊은 국악인들의 개성 넘치는 무대를 통해 우리 전통 음악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 JUNE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19: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문의 ☎ 1566-9621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14:00 / 19: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위대한 탐소 16:0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5	6	7	8	9	10	11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14:00 / 19: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연극 <췌> 16:0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경기신진 예술가 콘서트 4인 4색 19:3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경기사나리오케스트라 <사계의 노래> 16: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문의 ☎ 031-230-6471~4
12	13	14	15	16	17	18
경기사나리오케스트라 <사계의 노래> 16: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경기도극단 연극 <파문한 아이> 19:30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문의 ☎ 031-230-3302~4	한국지역 난방공사와 함께 하는 <고전적 음악, 아침 II> 11:0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15:00 →
19	20	21	22	23	24	25
15:00 →		19:30 →				경기도무용단 <하랑 - 함께 날아오르다> 16:0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문의 ☎ 031-230-3311~4 어린이 뮤지컬 <핑크퐁과 아기상어의 월드투어쇼> 11:00 / 14:00 / 16: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문의 ☎ 02-333-9009
26	27	28	29	30		
15:00 → 경기도무용단 <하랑 - 함께 날아오르다> 16:0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어린이 뮤지컬 <핑크퐁과 아기상어의 월드투어쇼> 11:00 / 14: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문의 ☎ 1566-9621		안양오페라단 <한국가곡의 발자취 "아! 대한민국"> 19:3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한스지머 & 히사이시 조 스페셜 콘서트 19: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연극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19:3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기획공연 ☎ 031-230-3440

경기도무용단 ☎ 031-230-3311~4

경기도극단 ☎ 031-230-3302~4

경기사나리오케스트라 ☎ 031-289-6471~4

경기팔하모닉 ☎ 031-230-3321

예술단 기획공연 기획공연

7 JULY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연극 <이장(移葬)> 16:0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최현우 <THE BRAIN> 15:00 / 19: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문의 ☎ 1688-6675
3 최현우 <THE BRAIN> 14:00 / 18: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4	5	6	7	8 	9 헬로카봇 뮤지컬 시즌6 <흔들흔들 댄스파티> 11:00 / 14:00 / 16: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문의 ☎ 02-333-9009
10 헬로카봇 뮤지컬 시즌6 <흔들흔들 댄스파티> 11:00 / 14: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11	12	13 연극 <육상 위 달빛이 머무는 자리> 19:3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14	15	16
17	18	19	20 	21 연극 <문밖에 나> 19:3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22	23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베르디 레퀴엠> 17: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문의 ☎ 031-230-3324~5 희망콘서트 <그림 읽어주는 여자> 16:0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24	25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베르디 레퀴엠> 20:00 롯데콘서트홀 문의 ☎ 031-230-3324~5	26	27 연극 <꽃잎> 19:3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28	29 	30 경기국악원 'ظم콘서트' - 더할나위없이 16:0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문의 ☎ 031-289-6420
31 국악 IN 가요 16:0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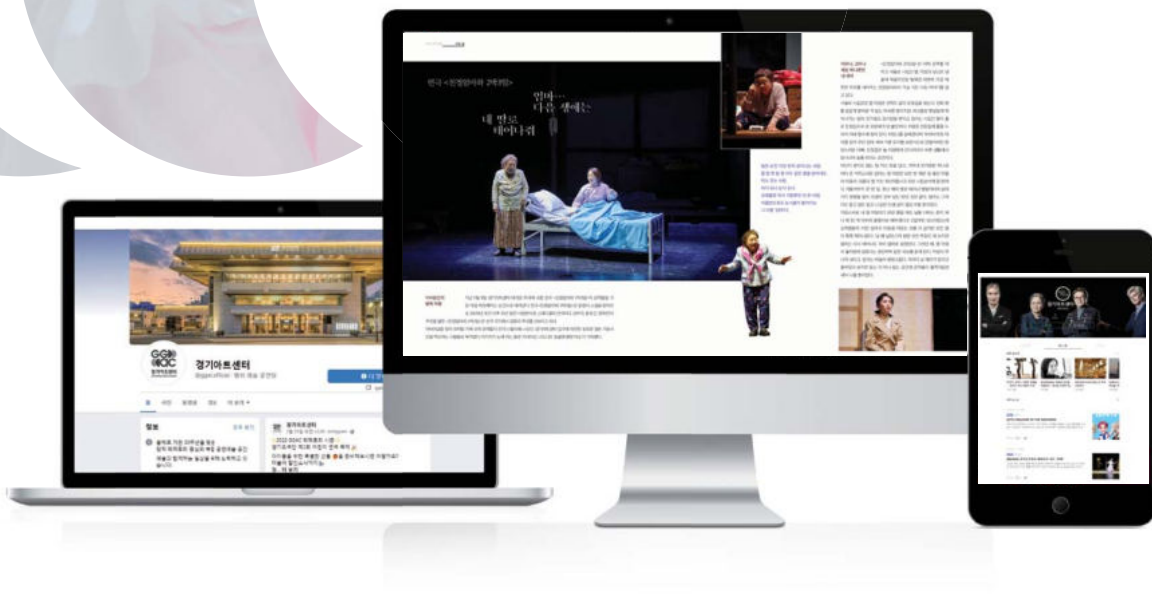
* 상기 공연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관람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술단 기획공연 기획공연

티켓문의 ☎ 031-230-3441~2 (평일 10:00~19:00, 주말 10:00~17:00)

예술과만남 슬기로운 탐구생활

<예술과만남>은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로 운영됩니다.
홈페이지와 SNS, 블로그,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 등에서 다채로운 공연 소식과
아티스트, 숨은 이야기, 국내외 문화 트렌드를 만나보세요.



GGAC STORY



📧 @ggac_official

경기아트센터의 다양한 소식과 현장감 넘치는 공연 열기를 전합니다. 다양한 SNS 이벤트도 놓치지 마세요!

f. @ggac.official

경기아트센터의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입니다. 경기아트센터에서 마련한 문화예술 소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YouTube. '작! tv 경기아트센터'

우리 삶의 예술, 경기아트센터의 공식 YouTube Channel입니다. 내 손안에서 펼쳐지는 명작 공연 실황 등 '작! tv'에서 경기아트센터의 실시간 공연을 보실 수 있습니다.

📄 m.post.naver.com/ggarts

지면과 SNS에서 미처 전하지 못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다양한 글말과 사진, 포스트를 지금 확인해보세요.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아트센터 예술과만남'

경기아트센터의 다양한 정보와 브랜드 소식, 프로모션, 공지 등 한눈에 모든 콘텐츠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술과만남>은 국악과 클래식, 연극 등 경기아트센터의 각종 공연 소식과 일정, 인터뷰, 뉴스 정보 등 다방면에서 문화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문화예술전문 매거진입니다. 공연과 콘텐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메일로 의견을 보내주세요.

magazine@ggac.or.kr

경기아트센터 기획공연

시그니처
브랜드
시리즈

새로운 경기 > 공정한 세상

GGAC 경기아트센터
GYEONGGI ARTS CENTER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함께하는

고전적 음악, 아침 II

CLASSICAL MUSIC

2022 경기아트센터 11시 콘서트 진행 | 손일훈 작곡가

2022.6.16.Thu.11:0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출연진 | 박종해 Piano, 김재원 Piano

티켓 R석 30,000원 S석 20,000원 | 관람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예매  인터파크 1544-2344 ticket.interpark.com | 문의  경기아트센터 031-230-3440 ggac.or.kr

※ 공연 후 커피와 쿠키가 제공됩니다

